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11월 2일 사우스보스톤 소재 사이클로라마 아트센터에서 열린 당선 축하파티에 당선 수락연설을 위해 들어서고 있는 미셸우 보스톤 시장 당선자

미셸우 역사적 보스톤 시장 당선, 샘윤이 생각나는 이유

최초의 아시안 여성 시장, 비 보스톤 소수민족 출신 시장
2009년 샘윤의 도전에 이어 두번째 도전에서 아시안 시장
팬데믹에 혐오범죄 겪은 아시안들에게는 당선이 작은 위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선거 승리란 단어를 안고 단상에 오른 미셸우 시의원은 만면에 웃음을 띠었다. 당선 파티에 참가한 사람들도 열광했다. 연설 중간 잠시 숨을 고를 때 미셸은 당선의 진정한 기쁨을 음미하듯 말을 멈추고 파티장을 가득 채

운 지지자들을 응시했다.
미셸우 시의원이 보스톤의 역사를 새로 쓰는 순간이었다. 우 시의원은 11월 2일 열린 선거에서 승리하며 보스톤 최초의 아시안 시장, 보스톤 최초의 선출된 유색인종 시장, 보스톤 최초의 선출된 여성 시장이란 모든 타이틀을 한꺼번에 차지했다. 순간 샘윤이 떠오르는 것은 어쩔



이번 주 일요일 서머타임 종료

11월 7일 서머타임 종료, 긴 밤과 겨울의 시작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올해 서머타임(Daylight saving time)이 11월 첫째 주 일요일인 7일 새벽 2시를 기해 해제된다. 이에 따라 11월 1일 새벽 2시는 새벽 1시 한시간 전으로 바뀐다.

서머타임의 종료는 본격적인 미 동부의 겨울이 시작됐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올해는 아직 첫눈을 맞이하지 않았지만 추운 겨울이 될 것이라 예보다. 서머타임이 해제되면 해가 이른 시간에 저물어 밤이 더 길어지는 느낌을 받는다. 야외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으므로 아침시간에 운동을 하든지, ▶▶3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law@lookjs.com

KATHY SONG

고객만족도 평가 5/5을 보여주는 고객 최우선 서비스를 약속 드립니다. 주택, 상가, 비즈니스 매입 매매 상담 환영합니다.

- **Chicopee** : 치코피 커머셜 빌딩 매매

Great rental history/
3 타입 비즈니스 입주 상태
자세한 내용은
캐시에게 문의 하세요.
6,500 Sq.
매매 \$649,000

Call Kathy Today 413.313.4165
Kathysong2019@gmail.com

애나 정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전국 1위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MA, Korea licensed
Muti -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CIPS, SRES, ABR
617.780.1675
anna@bostonpremierrealty.com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포장포스
한국에서 포장재를
안전하고 저렴하게 수입하세요!

주문제작 사이트
포장재를 원하는 대로
전문가와 쉽고 빠르게!
www.pojangposs.com

기성품 사이트
프랜차이즈 용품 등
모든 게 한곳에!
www.pojangboss.com

시민협회, 코리아데이 보스톤 커먼서 성황리에 마쳐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시민협회가 주최한 한국의날(Korea Day, 이하 코리아데이) 행사가 3회를 맞아 처음으로 보스톤 커먼에서 10월 13일 개최되었다. 매사추세츠 정치인 및 주민들에게 한국과 한국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매사추세츠 주청사에서 개최되어 왔던 코리아데이는 2020년 팬데믹으로 취소되었으나 올해 다시 야외에서 재개됐다.

찰리 베이커 주지사는 사상 처음으로 한국의 개천절을 인지하고 지난 10월 3일을 한국의 개천절로 준수할 것을 선포했다. 이날 행사에는 시민협회 양미아 회장, 유기준 총영사와 마리아 로빈슨, 태키 첸 매사추세츠 하원의원이 축사를 전달했고 바나 하워드, 타미 비틀라 그리고 매사추세츠 한인회 서영애 회장 인사들이 함께했다.

양미아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시민협회는 한국의 날을 외부적인 측면과 내부적인 측면으로 꾸미려했다” 고 말했다. 외부적으로는 한국의 문화를 표현해주는 한국 음식, 한국 무용, 가야금 연주, 한복의상, 한국의 전통놀이 등을 통해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게 도와주고, 내부적으로는 단군왕검의 흥익인간정신이 이룬 한국인의 위상을 코리아데이를 통해 마음껏 선보이고, 즐기는 날을 만들 고자 했다는 것이다.

미 에너지부 차관보로 지명된 한국계 마리아 로빈슨 하원의원은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아시안 아메리칸은 하나의 단체로 뭉쳐야 하며 (의회 내) 아시안 코커스(Asian Caucus)는 아시안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협회의 코리아데이는 아시안 아메리칸이 같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의미있는 행사라고 덧붙였다.

유기준 총영사는 “이번 해에는 개천절이 매사추세츠에서 공식으로 지정 기념일이 된 것은 뜻깊은 성과이며, 시민협회가 이렇게 귀중한 성과를 한국의 날을 통해 널리 알려 줌에 감사드린다” 고 했다. 또한 한국과 미국의 동맹은 강건하고, 이민법, 경제적인 활동, 문화의 교류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말했다.

택키 첸 의원은 “코리아데이에 아시안 코커스 동료들과 함께해서 기쁘며, 아시안 아메리칸의 이민법 등, 모든 다양한 이슈를 도와주도록 노력하겠다. 코리아 데이는 모든 이들이 각각의 문화를 서로 이해하고 같이 할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고 의미를 부여했다.

양미아회장은 “코리아데이에 협찬을 해주신 총영사관과 한인회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노인회 어르신들의 뜨거운 성원에 감



시민협회가 주최한 한국의날(Korea Day, 이하 코리아데이) 행사가 3회를 맞아 처음으로 보스톤 커먼에서 10월 13일 개최되었다

사 드린다” 고 감사를 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박 터트리기, 딱지치기, 종이접기, 한국의 훈례복 모델과 사진찍기,

한국말로 영어이름 쓰기 등의 다양한 한국문화 체험활동이 진행됐다.

bostonkorean@hotmail.com



Beef Soup for the Soul 서울설렁탕 SEOUL SOULONGTANG

SUMMER SPECIAL COLD NOODLES

물냉면 14.95
Mul-Naengmyun
Cold root starch noodles with beef briskets, assorted vegetables and a boiled egg in cold beef broth

비빔냉면 14.95
Bibim-Naengmyun
Cold root starch noodles with beef briskets, assorted vegetables and a boiled egg with spicy sauce on top

**형사법
상법/회사법
민사법
부동산/클로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매사추세츠 어린이 백신, 소아과 또는 약국체인에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CDC가 어린이 백신 접종을 허용하면서 5-11세 어린이들의 백신 접종이 가능해졌다. 백신 접종을 원하는 부모는 해당 소아과 또는 CVS, 월그린 등 대형약국체인을 통해 접종이 가능하다.

주정부는 백신이 소아과, 1차진료의, 커뮤니티헬스센터, 병원 등의 의료기관 각지역 보건소, 약국 체인 등에서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총 약 700여 곳에서 접종이 가능하며 백신 접종 예약은 웹사이트(vaxfinder.mass.gov)를 통해 할 수 있다.

보건부는 지난달 18만 도스의 백신이 약국체인에서 그리고 18만 도스의 분량이 의료기관에서 각각 주문했으며 이번 주 금요일인 11월 5일부터는 백신 접종이 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케임브리지 헬스얼라이언스(Cambridge Health Alliance)의 1차진료과 과장인 제사민 블라우 박사는 현재 백신을 받고 있는 중이며 이번 주말부터 예약을 받기 시작해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백신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스톤칠드런스호스피탈(Boston



주정부는 백신이 소아과, 1차진료의, 커뮤니티헬스센터, 병원 등의 의료기관 각 지역 보건소, 약국 체인 등에서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Children's Hospital)은 11월 5일 금요일부터 백신을 접종한다고 밝혔다.

CVS는 3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주 일요일인 7일부터 일부 약국체인점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CVS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주내에서는 52곳에서 어린이용 백신을 제공한다.

CVS는 접종을 원하는 부모는 3일부터 CVS.com 온라인으로 예약하라고 권장했다.

월그린은 3월 이번주 토요일인 6

일부터 전국적으로 접종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부모들은 3일부터 월그린 웹사이트(Walgreens.com/ScheduleVaccine) 또는 월그린 앱 전화등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다.

월그린은 추가분의 도스를 제공받으면 더 많은 예약이 다음주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백신 접종 초반에는 접종을 원하는 부모들이 몰려 예약이 쉽지 않겠지만 곧 충분한 백신 공급량이 보급되면 시간이 지

날수록 백신 접종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매사추세츠 주내에는 약 51만 5천 명의 5세에서 11세 사이 연령대의 어린이가 있으며 미 전역으로는 2천 8백만명의 어린이가 이 연령대에 속한다.

미 질병통제센터는 2일 어린이 백신을 허용했다. 이는 이미 FDA의 승인을 받은 상태다. 어린이들은 2주사를 3주간격으로 접종한다.

hsb@bostonkorea.com



이번 주 일요일 서머타임 종료

▶▶1면에 이어서
대체할 수 있는 실내 운동 계획을 세우는 게 좋다.

보스톤을 비롯한 미국 동부의 한국과의 시차는 현재의 13시간에서 14시간으로 1시간 늘어난다.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서부 지역과 서울의 시차는 16시간에서 17시간으로 바뀐다. 서울의 시간은 미국 동부보다 14시간, 서부보다는 17시간 빠르게 된다.

대부분의 컴퓨터 기기는 자동으로 서머타임 해제가 적용되어 시간이 바뀌어 과거와 같은 혼동은 비교적 줄었다. 직접 바꿔주어야 하는 벽걸이 시계, 오래된 차량의 시계는 토요일인 11월 6일 밤에 시계 침을 한시간뒤로 돌려놓으면 착오를 막을 수 있다. 시간을 앞으로 돌려야 할지 뒤로 돌려야 할지 혼동이 되는 경우 'Spring forward Fall back'으로 기억하면 쉽다.

hsb@bostonkorea.com

Shoe City Family Dental

(원장: 김동원)

코로나로 변한 세상,
이제 당신의 건강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최고의 의료 장비와
최고의 의사가
최고로 건강한 치아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산 자가진단 코로나 테스트 키트 판매 합니다. 개당 \$50”

103 Merrimack St
Haverhill, MA 01830

Phone : 978.971.0060
Fax : 978.971.0061

▶▶4면에 이어서

틴전시를 선택하지 않아야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이다.

한국분들이 선호하는 지역들은 대부분 다른 지역에 비해 가격이 높은 곳들인데 구매자들이 미리 알아두어야 할 것들이 있는지?

앞서 말했듯이 마음에 드는 집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인스펙션 및 모기지 두가지 컨디션이 웨이브(waive) 해야 한다. 바이어가 직접 프리인스펙션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못구하는 경우 평소에 건축업자와 충분한 릴레이션십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추천해 줄 수 있다. 사전에 모기지 전문가를 접촉해 사전모기지승인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이 유리하다.

95번 바깥쪽으로 구입을 원하는 경우 알아둬야 할 것은?

95번 외곽에서는 이제 비딩이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비교적 학군이 좋은 액튼, 콩코드, 서드베리, 링컨, 베드포드, 하버드, 웨스트포드, 노스레딩 정도의 경우 비딩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다. 꼭 마음에 들면 다른 사람도 탐을 내게 되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자를 원하는 한인들의 경우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들은 무엇인가?

부동산 투자전 점검해야 할 것은 수익율(Cap rate)과 상승율(Appreciation)이다. 캡은 현금화 즉 렌트수입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캡이 많을수록 투자건물의 가격상승은 적은 경우가 많다.

또한 투자건물의 형태, 즉 다가구(Multi Family), 단독주택(Single Family), 콘도(Condo)로 나뉘며 상승률은 단독-다가구-콘도 순이며, 수익율은 다가구, 단독, 콘도 순이다.

한인들이 선호하는 곳은 수익율이 적고 상승율이 높은 건물이다. 단독은 Lexington, Newton, Belmont, Winchester 등을 추천한다. 다가구의 경우 에버렛과 우스터가 좋다.

현재 모기지 이자율은 얼마 정도인가? 향후 모기지 이자율 추세는 어떤가?

현재 30년 고정 일반(Conventional) 모기지 이자율은 상황에 따라 2% 후반에서 3% 초반 정도다. 물론 개인에 따라 큰 차이가 있고 프로그램에 따라 차이가 있다. FHA와 같은 경우 이자율은 더 낮지만 모기지보험료(PMI)는 확연히 높아질 모기지 페이먼트 금액이 많은 편이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향후 모기지 이자율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 것인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을 유발한다. 물가도 수요도 낮은 디플레이션이 있을 때 은행은 종종 더 낮은 이자율을 적용한다. 은행은 더 오른 부동산에 대한 모기지 이자율을 올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

높은 부동산 가격에 집장만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짐에 따라 임대 수요가 높아진다. 이는 아파트 임대료 인상을 촉발하므로 부동산 투자는 임대료인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집장만을 원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무엇인가?

집장만은 장기적으로 본다면 집값 상승, 렌트비 지출과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렌트비를 고려한다면 늦기보단 최대한 일찍 하는게 유리하다. 보스턴 주변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들어도 공급보다 소비가 높은 지역특성상 집값이 확연히 내리기는 어렵다. 이자율이 오르게 된다면 월 페이먼트도 오른다. 그렇기에 집은 지금 내가 필요하다면, 장기적인 전망으로 장만하는 인생최대 투자라고 할 수 있다.



서울대 뉴잉글랜드동창회 아우회 가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서울대 뉴잉글랜드동창회(회장 김유경)는 지난 10월 23일 내틱에 위치한 코치추에이트(Cochituate)스테이트 파크에서 이사회 및 아우회를 개최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2년만에 열린 이번 행사는 동문과 가족 60여 명이 참석해 온화한 날씨의 늦가을 호수 풍경과 주최측에서 마련한 풍성한 바베큐 식사와 다과로 화기에 애한 시간을 보냈다.

식사 후에는 김유경 회장의 인사와 임원진 소개가 있었다. 이어 진

행된 서울대 트리비아 퀴즈 이벤트에서는 1950학년부터 2009학년에 이르는 여러 동문들이 참가하여 그때그시절을 회상하며 학창시절을 함께 추억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동창회에서는 다음 행사로 2022년 신년하례식을 줌(zoom) 미팅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동창회의 향후 계획이나 지난 행사 사진들은 <https://snuane.org/announcement>에서 찾아볼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THE WORLD'S No.1 GINSENG BRAND
CheongKwanJang

Source: Euromonitor International Limited; Vitamins and Dietary Supplement category; % retail value share, 2019-2019 data; CH2020 edition

가족에게 건강한 습관을 선물하세요



Happy Thanksgiving

가족건강이 가장 큰 감사!

Thanks Giving Family Giving

행사기간 : 11/8일 ~ 28일까지

1 면역력



홍삼톤, 자녀용 제품구입시
1개/2개/3개
5%/10%/20%

2 면역력



홍삼정 240g 구입시
홍삼정 30g 추가증정

3 면역력



천녹정 구입시
홍삼원골드 한박스 추가증정

면역력의 힘! 정관장 홍삼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전화로 주문후 집에서 편하게 받으세요.
\$100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미셸우 보스톤시장 당선자가 3일 제니 김 보스톤시장 대행을 찾아 향후 보스톤 시 인수인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미셸우 2주 후인 11월 16일 취임, 인수인계는 어떻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셸우는 보스톤 역사의 많은 부분을 새롭게 장식했다. 그의 취임 또한 내년 1월이 아닌 11월 16일 약 2주 후에 이뤄지게 된다.

이번 보스톤 시장 자리는 마틴 월 시 전 시장이 바이든 행정부의 노동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생긴 공석 이기에 11월 16일 취임하게 된다. 2013년 선거에 승리한 월 시 전 시장은 1월 까지 휴가기간을 즐길 수 있었던 것과 확연히 대비된다.

미셸 우 당선자는 11월 3일 오전 8시 30분 라스베리 에 위치한 언더그라운드 카페에서 첫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빠듯한 스케줄에 대해서 이야기 했다.

우 당선자는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새로운 보스톤 시 정부 인수팀을 구성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보스톤 각 커뮤니티에 정통한 대표들과 행정부의 각 우선적인 과제를 전체 커뮤니티 기관들에게 연계할 수 있는 점을 반영한 전체 내각을 구성하는 것이 관건” 이라고 덧붙였다.

우 당선자는 아직 비서실장을 결정하지 못했으며 수일내에 주요 각료들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

면서 그는 3일 김 제니 시장 대행과의 회의 후에 좀더 자세한 인수인계에 대해 고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셸 우 시장은 과감한 진보 아젠다를 통해 보스톤의 진보성향의 유권자들을 사로잡았지만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료 구성 외에 발등에 떨어진 불 즉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크 호란 민주당 정치 컨설턴트는 보스톤글로브와의 인터뷰에서 시급하고 어려운 과제는 “현재 대행체제로 공석인 보스톤시 경찰청장 임명, 그리고 노숙자들의 거처인 매스앤캐스(Mass and Cass) 처리문제이며 이는 미셸 우가 그리고 있는 전체 그림과 잘 맞아 떨어지지 않는 과제들” 이라고 말했다.

호란은 “미셸우의 능력을 측정하는 진정한 척도다.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경우 바로 대문 앞에서 넘어지게 하는 돌부리가 될 수 있다” 고 그는 덧붙였다

우 당선자는 1993년 당선된 토마스 메니노 전시장의 전례를 따르게 된다. 당시 레이몬드 플린 시장은 바티칸 대사로 임명되면서 시장직을 떠

났고 11월 16일부터 시장 대행 역할을 하다가 당선됐다.

우 당선자의 승리는 보스톤이 이제 확실하게 얼굴을 바꾸고 있음을 드러낸다. 사우스보스톤, 도체스터, 웨스트 라스베리로 대변되는 백인 보수적 유권자 층이 한 때는 보스톤의 정치인을 당락시키는 킹메이커였으나 이제는 자메이카플레인, 로슬린데일 등으로 대변되는 다양한 인종의 진보연합이 정치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된다.

마크 호란 컨설턴트도 이번 선거는 진보 유권자들이 좀더 중도 성향의 백인 근로계층을 대신하고 있다는 징조라고 지적했다.

“분명한 것은 좀더 학력이 높은 진보적 유권자들이 전통적인 근로계층의 유권자들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보스톤 시에서 일어난고 있는 모든 것을 바라보면 결코 놀랄만한 일은 아니다” 라고 말했다.

30, 40대의 의사, 변호사 그리고 진보적 가치를 학습한 학부모들로 구성된 유권자층들은 이미 일찌감치 미셸우를 보스톤 시장으로 결정하고 일체의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hsb@bostonkorea.com



상원도 연방경기부양자금, 근로자 보너스 법안 공개

11월 17일 이전에 최종안 주지사에게 송부 계획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상원은 3일 366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경기부양자금과 세금인여금의 사용법안을 공개했다.

지난 주 하원이 통과시킨 380억 달러 법안과 거의 흡사한 이 법안은 저임금 근로자들에 대한 보너스 그리고 수백만 달러의 하우징 건축 등을 가장 우선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250억 달러의 마구제계획 지원금과 140억 세금인여자금을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예산 집행계획이다.

상원과 하원은 모두 5억 달러의 자금을 핵심사업체 근로자들에게 보너스 급여를, 또한 5억 달러를 주부채상태에 놓여 있는 실업보험트러스트기금에 지급토록 하는데 사용토록 하고 있다.

하원의 법안에 따르면 저소득 핵심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며 연방 빈곤선 300% 이하의 소득자이며 지난 16개월 코로나바이러스 비상사태 기간 동안 근무했던 근로자들에게 4억 6천만 달러를 지급한다. 지급 금액은 \$500에서 \$2,000 사이 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원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핵심

근로자 수는 80만 명에 달한다. 연방 빈곤선 300% 이하는 개인의 경우 \$38,640, 4인 가족 \$79,500 이하이므로 이중 어느 정도가 이에 해당할지는 아직 정확하지 않다.

상원은 하원의 보너스 지급 구조는 그대로 차용하되 다만 이를 관리 감독하는 패널을 만들어 누가 궁극적으로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지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상원은 행동건강분야에 4억 달러를 배정해 하원의 1억 5천 달러 배정에 비해 큰 비중을 두었다. 특히 1억 2천 2백만 달러를 행동건강 전문가들의 대출 상환 프로그램에 배정했다.

또한 2억 5천 1백만 달러를 각 지역 보건소에 할당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인력 손실 등의 보충에 사용토록 했다. 상원은 11월 10일부터 토론에 들어가 이를 통과시킬 예정이다.

의회는 11월 17일부터 휴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전에 최종법안을 통과시켜 베이커 주지사에게 송부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상원의 통과 이후 하원과의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다.

hsb@bostonkorea.com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좋은 치과, 좋은 치아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공인회계사

정진수

CPA / 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여(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미셸우 역사적 보스톤 시장 당선, 샘윤이 생각나는 이유

▶▶1면에 이어서

수 없었다.

3일 오전 비공식 집계에 따르면 미셸 우 후보는 62.7%에 달하는 91,239 표를 득표했으며 에사비 조지 후보는 37.3%에 달하는 50,879표를 득표했다.

2일 저녁 사이클로라마 센터포아츠에서 열린 당선 파티에 참석한 미셸우 지지자들은 미셸우 후보가 앞서고 있는 상황이 방영될 때마다 환호했다.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한다는 감동이 때론 춤으로, 때론 “우~” 하는 함성으로 드러났다. 많은 선출직 후보의 당선파티를 참가했지만 이번처럼 아시아인들의 얼굴이 많은 것도 처음이었다.

보스톤을 대표하는 얼굴이 우리와 같은 색깔이란 생각과 동시에 지난 팬데믹 때의 일이 주마등처럼 스쳤다. 아시안 혐오 범죄가 극성을 부렸고 심지어 애틀란타 총격 사태까지 벌어졌다. 우리가 미국사회에 속해 있는 것인지 회의를 갖게 했다. 팬데믹 기간은 “보이지 않는 아시안”에 대한 자각의 시간이었다. 미셸의 당선은 상처입은 아시아인들의 자존감에 작으나마 위안이 됐다.

그래도 한인들의 가슴엔 그늘이 있다. 특히 보스톤 시장이란 자리는 특별한 감회를 갖게 한다. 2009년였을까. 연도는 가물가물 하지만 보스톤 시장에 도전했던 샘윤의 패배는 씁쓸한 추억으로 되려 선명하다. 2005년 보스톤 최초의 아시안아메리칸 시의원으로서 당선됐던 그는 시장이란 높다란 장벽에 도전했다. 예비선거에서 플래허티에 이어 3위에 그치며 예비선거의 문턱마저 못 넘었다.

선거 패배 후 샘윤은 보스톤의 철저하게 폐쇄적인 관료조직 및 사회구조에 압박을

느꼈다. 여기저기서 일자리를 거부당한 그는 쫓기듯 가족과 함께 워싱턴 DC로 떠났다. 반면, 마이클 플래허티는 여전히 광역구 시의원으로 건재하고 올해 선거서도 광역구 1위로 당선됐다. 샘윤에게도, 한인들에게도 보스톤 시장 선거는 이렇듯 회한으로 남아 있다.

매사추세츠 서부에서 선김밥 푸드트럭을 운영중인 김선영 대표는 푸드트럭이 보스톤 시에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규제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프로판가스 사용이 불가한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차량에 끼는 음식기름을 제거하는 것을 시가지 지정 한 곳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한 카르텔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분야에서도 보스톤의 폐쇄성이 쉽게 드러난다.

미셸 우는 보스톤서 스몰비즈니스를 운영하며 이 같은 폐쇄성을 몸으로 경험했다. 미셸 우가 외치는 선거 구호가 이민자들에게는 귀에 쏙쏙 들어오는 이유다. “보스톤시는 우리를 위해 구축되지 않았고,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우리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 이런 보스톤 시의 체계를 바꾸겠다”는 그의 말은 선전포고였다.

선거축하파티 승리 연설에서도 그는 “우리는 보스톤 시가 모든 사람을 위한 곳이 되는 것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미셸 우 의원은 “우리는 모두가 보이고, 들리며 소중하게 여겨지는 보스톤 시를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스톤에서 거주하면서 느꼈던 많은 장벽과 소외감을 털어내는 일성이었다. 카르텔에 들지 못했던 이민자들은 자신을 대변할 대표성을 맞이하는 순간이었다.

오랫동안 자신들만의 리그에서 특권을



사이클로라마 아트센터에서 열린 당선축하파티에 참석한 인파 중에 많은 아시아인들이 눈에 띄었다

누려왔던 일부 보스톤 기득권층에는 불편한 일이겠지만 보스톤이 변해야 한다는 것은 그들도 공감하는 이야기다. 예비선거에서부터 여론조사에서 일찌감치 애니사 에사비 조지 후보를 30% 이상 앞서면서 승세를 굳힌 것은 변화를 반영하는 움직임이다.

미셸 우 당선자는 선거공약으로 렌트 컨트롤, 무료 대중 교통, 보스톤개발계획기구(BPDA) 해체 등의 정책들을 내세우며 과감한 개혁을 약속했다. 애니사 에사비 조지 후보가 선거동안 이상적이며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던 것들이다. 실현이 그만큼 어려울 것이란 얘기다.

당선파티는 끝났다. 미셸 우 후보는 다음 날인 3월 8시 30분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

일과를 바쁘게 시작했다. 11월 16일 취임까지 시간이 촉박하다. 자신들에게 표를 던진 유권자들에게 당선 이유를 증명해야 하는 책임감도 막중하다.

그렇수록 TV에 미셸 우 시장의 모습이 자주 등장할 것이다. 앞으로 뉴스시간에 자녀들에게 TV를 켜주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듯 하다. 누구나고 하면 보스톤 시장이라고 답해주자. 아이들은 어느새 자신의 롤모델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샘윤이 아니어서 아쉽고 응어리는 완전히 풀리지 않았다. 그게 레몬처럼 신맛일 수 있으나, 이를 레모네이드로 바꾸는 게 우리의 일이다. 자녀들에게 미셸 우도 샘윤도 모두 아시안일 뿐이다.

editor@bostonkorea.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 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 Boston 지사 에서 민연진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 NY 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판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 932-0400 Fax: (781) 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파산보호, 콜렉션 방어, 채무 조정
신용점수 분쟁 및 조정
교통사고 상해, 이민법
법인 사업체 등록, 정관, Bylaws, TIN
부동산/비즈니스 P&S 및 Closing
민/형사 소송

파산보호신청 의뢰인께 드리는 기본 서비스

프리미엄 크레딧 리포트
크레딧 어슈런스
리포트 모니터링 서비스(1년)

*익스페리언, 트랜스 유니언, 에퀴팩스 및 공공기록, 저당 및 판결결과 조사, 추가로, 현 점수 및 정리이후 예상 신용점수도 함께 제공
*Data Provided by CIN LEGAL Data Services. Additional fee may apply.

장우석 변호사 매사추세츠 및 뉴욕 주 라이선스
CHANG & ASSOCIATES, P.C.

781.712.1706 FAX: 781.712.2066
changlaw781@gmail.com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Michelle Han CPA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행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I, J1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i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125 Cambridge Park Dr, Ste301
Cambridge MA 02140
Woburn: 76 Winn St. 1F Woburn MA 01801

서머타임 종료, 아침형 인간으로 변화하기 위한 4가지 방법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서머타임이 7일 종료된다. 가을이면 시간을 뒤로 돌리기 때문에 최소한 시간을 더 잘 수 있는 시간을 받게 된다. 밤늦게 까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몸이 익숙해져 있는 시간을 잘 간직하면 그야말로 쉽게 '아침형 인간'으로 거듭날 수있기도 하다

따라서 서머타임의 여부에 과도히 신경쓰고 불만을 가지기 보다는 숙면과 좋은 수면습관을 다시 한번 리셋하는 기회로 가지는 것이 훨씬 좋다. 변화는 불편하지만 새로운 출발의 기회이기도 하다.

아침형 인간들이 많이 읽는 신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서머타임 변화를 자신의 장점으로 바꾸는 4가지 방법을 소개했다.

평시대로 일찍 자라

밤 11시가 넘었는데 서머타임이 해제되는 토요일 밤엔 영화라도 한편 더 보고 싶어진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12시로 기억하고 있다. 시계가 몇시를 가리키든 상관없이 한 시간의 여유를 수면으로 보충한다

평상시 11시에 잠자리에 든다면 서머타임 종료 이후에는 시계가 10시를 가리킬 때 잠자리에 든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1시간 더 일찍 일어나도록 할 수 있다. 말로 박사는 "일찍 잠자리에 가게 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고 지적한다.



어린이들에게는 반대의 접근이 필요하다. 같은 시간에 재우게 되면 새벽 5시께 집 전체가 잠에서 깨어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수 있다.

서머타임 3월 전부터 평상시보다 30분 늦게 자도록 한다. 그렇게 해서 어른들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도록 한다. 예일 뉴헤이븐 어린이 병원 어린이 수면센터 크레이그 캐나파리 소장은 "아이들의 수면 시간은 점진적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고 지적했다.

아침을 잘 시작하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일과를 하기 전에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자연스럽게 일찍 일어나는 것은 운동이나 새로운 일상을 만들기에 이상적이다.

일단 일어나면 아침햇살을 맞는데 우선순위를 둔다. 해가 뜰 때 밖으로 나가면 자동적으로 신체의 시각을 저장하게 되며 시간의 변화를 잊게 한다. 말로 박사는 "자연광은 우리의 몸을 깨우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밤에 더 잘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고 말한다. 밖에 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커튼이나 셰이드를 걷어 올려 햇살을 들이도록 한다.

불을 더 밝히고 잠자리를 편하게 낮이 짧아지므로 어두운 밤에 몸이 잘 적응하도록 한다. 가능하다면 4시 이후에 커피를 자제한다. 더 많은 전등을 키는 등 불을 환하게 밝혀서 몸이 활발하게 만든다. 저녁을 6시께 일찌감치 먹고 잠자리에 들 시간에는 활동을 줄이고 좀더 편안한 분위기를 만든다.

밤에 스크린을 피하라

낮시간이 줄고 밤공기가 차가운 밤일수록 스크린을 오래 보는 것은 숙면에 방해가 된다. 밤에 각종 스크린을 사용하게 되면 이 화면 빛이 자연적인 멜라토닌 생성을 방해해서 수면을 방해한다. 전문가들은 밤이 되면 컴퓨터 및 스마트폰 등의 세팅을 다크모드로 바꾸라고 조언한다. 또한 가능하다면 스크린을 피하도록 해야 한다.

hsb@bostonkorea.com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태양자동차

Body & Repair / States Insp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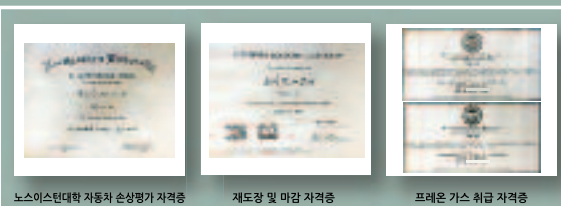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럽, 미국
일본, 한국



리페어 워크/바디 워크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노스이스턴대학 자동차 손상평가 자격증 제도장 및 마감 자격증 프래온 가스 취급 자격증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q. 5 min / Lexington 10 min / Newton 20 min
E mail: sunautobody@yahoo.com

형제 떡집

모든 종류 떡 주문 가능!



영업 시간


딜리버리: 상황에 따라 결정됨
픽업: 상황에 따라 결정됨
주문: 일주일 내내

CEL: 978.343.6080

CEL: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요가송의 5분요가

유튜브 검색창에  요가 읽어주는 여자 hayeon

목통증 없애는 매일 5분 초간단 스트레칭

장시간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으로 목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특히 거북목 말린어깨, 구부정한 허리 등 바르지 않은 자세가 고착되면, 목디스크, 경추 협착증을 가져오고, 이로 인해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 팔저림, 어깨통증까지 유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주는 여러분이 언제 어디에서나 간단하게 따라할 수 있는 목 스트레칭 루틴을 소개해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서 '요가 읽어주는 여자 hayeon' 을 검색하신 후, 최근 영상에서 목통증 5분만에 해결! 편을 찾아 꼭 따라보시고,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알림설정도 꼭 함께 해주세요.

의자에 앉아서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첫번째 자세는 Front Body Stretch입니다.
 STEP 1. 두 손을 깍지껴서 천정위로 보냅니다.
 STEP 2.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도리도리 하듯 움직여줍니다.
 STEP 3. 목의 긴장을 푼 상태에서 손을 좀 더 뒷벽으로 보내며 가슴과 어깨 앞면, 옆구리를 눌러 굽어졌던 등을 펴주세요.
 STEP 4. 손을 앞으로 보내 턱을 가슴쪽으로

가져갑니다. (영상 참조)



두번째는 Side+Back Neck Stretch입니다. (사진 들)
 STEP 1. 고개를 오른 어깨 쪽으로 내려오른 손으로 머리 옆면을 지긋이 눌러 목 옆면을 스트레칭 해줍니다.
 STEP 2. 왼 어깨를 귀에서 멀리 바닥 쪽으로 내리며 손도 옆으로 뻗어줍니다.
 STEP 3. 3번의 호흡 후 턱을 오른 가슴이 있는 방향으로 내려 목 뒷면을 눌러줍니다. 왼손



등을 등위로 가져가 어깨도 열어줍니다.
 STEP 4. 중앙으로 돌아와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스트레칭 해줍니다.
 주의! 척추는 바른 중립상태를 유지하고 어깨의 긴장 풀고 진행해주세요.

유튜브도 좋지만 라이브 온라인 수업으로 선생님과 소통하며 직접 자세 교정도 받고 싶다면?

하연샘과 함께 하는 매주 라이브 ZOOM 요가 & 필라테스

라이브 ZOOM 무료 수업 체험
 현재 매주 온라인 라이브 ZOOM요가&필라테스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건강과 아름다움, 자신감과 긍정의 힘을 기를 수 있는 기회이니 1회 무료체험을 원하시는 분은, 카톡아이디 yogafullnesslife 로 본인 이메일 주소와 함께 신청해주세요.

송하연, 요가티처/요가풀니스라이프 대표
 유튜브채널 바로가기 <https://bit.ly/3w9ks4u>
 카카오톡 아이디 yogafullnesslife
 이메일 주소 connect@yogafullness.life
 홈페이지 www.yogafullness.life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향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COMPASS

Our mission is to help everyone find their place in the world.



Why Compass 왜 컴파스인가?

- 부동산 서비스와 정보기술(IT)을 접목한 프롭테크(PropTech) 기업
부동산(property) + 기술(technology) = 컴파스 (Compass)
- 부동산 구매자와 에이전트들을 대상으로 상세한 매물 검색과 개인화된 매물추천, 부동산 거래 관련 상호 커뮤니케이션 등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통합 부동산 플랫폼 제공
-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이 5000억원 투자한 회사
- 저스틴 월슨 비전펀드 선임 투자전문가 “컴파스는 주택 구매자와 중개업자를 연결해주는 차별화된 기술 플랫폼을 갖추고 있어 이 분야에서 입지가 탄탄한 기업”
- 2019년 판매량 기준 보스턴 및 케임브리지 1위 (Source: MLS)
- 750+ Agents in Greater Boston
- Operates in 20 U.S. markets including New York, Philadelphia, Boston, LA, Chicago, Washington D.C., Dallas, etc.

Agent Introduction 에이전트 소개

안녕하세요, 제이슨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의 성원과 격려로 미국 최고의 부동산 회사인 컴파스와 함께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부동산 토털 서비스를 가지고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컴파스에서 제공하는 고객 맞춤형 마케팅 전략과 최고의 정보기술과 함께, 헌신 (dedication), 믿음 (Trust), 결단력 (Determination) 을 기반으로 고객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거래에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Compass 와 함께 차원이 다른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이슨 드림



Jason Jeon 제이슨 전
Realtor®
jason.jeon@compass.com
617.642.5670



compass.com

Compass Services

Compass Concierge 컴파스 컨시어지

컴파스 컨시어지는 셀러에게 무이자로 주택 개선 비용을 지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페인트, 바닥, 스테이징 등 집 리모델링에 관한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의 가치를 최대한 올려 더 빠르고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입니다.

Compass Coming Soon 컴파스커밍순

compass.com 에 부동산을 시장에 출시 될 예정임을 사전에 광고하여, 사이트를 검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과 수요를 창출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Compass Bridge Loan Services 컴파스 브릿지론

컴파스 브릿지론은 최대 6개월의 브릿지대출의 대출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업계를 선도하는 브릿지 대출 기관인 Freedom Mortgage, Better.com 의 경쟁력있는 이자율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Compass is a licensed real estate broker and abides by Equal Housing Opportunity laws. All material presented herein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Information is compiled from sources deemed reliable but is subject to errors, omissions, changes in price, condition, sale, or withdrawal without notice. No statement is made as to the accuracy of any description. All measurements and square footages are approximate. This is not intended to solicit property already listed. Nothing herein shall be construed as legal, accounting or other professional advice outside the realm of real estate brokerage.



주정부, 케이프 코드 5개 호수 물고기 식용 주의 권고

자연산 물고기에서 영구화학물질 검출, 양식 송어만 괜찮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보건부는 케이프 코드 소재 5개 연못의 민물고기 식용 섭취에 대해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최근 케이프코드의 16개 연못물과 5개 연못의 물고기를 검사한 결과 물고기에서 높은 양의 PFAS(영구화학물질)이 검출됐다. 매스피의 존스 폰드, 본의 플렉스폰드, 풀머스의 켄킨스와 그루스 폰드에서 잡힌 생선에는 신규 식용주의 권고가 내려졌다.

16개 연못의 경우 수영이나 기타

레크레이션 활동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 정도의 안전한 양만 검출됐다.

보건부가 발표한 신규 민물생선 식용 권고는 각 연못의 PFAS의 양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 성인의 경우 1주일 1회로 섭취를 제한했고, 12세 이하의 어린이와 임산부의 경우 섭취를 금지했다.

“영구화학물질”로 알려진 PFAS는 상당수의 상업용 제품에서 발견되며 결코 자연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이 물질은 간 및 신장 기능, 갑상선 호르몬,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준, 면역체계의 변화를 초래하

며 장기적으로 노출됐을 경우, 암, 저체중아 출산을 비롯한 일련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부의 식용금지 권고는 모든 자연산 연못 물고기들에 적용되며 다만 양식된 후 방류된 송어의 경우 식용섭취가 가능하다. 보건부는 이들은 충분히 체내에 PFAS를 축적할 만큼 연못에서 오래 살지 않았기에 안전하다고 밝혔다.

매사추세츠 환경부와 보건부는 주내 수돗물과 지하수 그리고 연못 등에서 PFAS를 계속해서 검사하고 있다.

hsb@bostonkorea.com

매사추세츠 동북쪽 시브룩서 은행강도 도주중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동북쪽 해안가 인근 마을 시브룩에서 34세의 은행강도 남성이 도주했으며 경찰은 이 남성을 추격 중이다

브랜든 시몬즈는 지난달 30일 뉴베리포트의 한 약국체인에서 강도사건을 벌인 후 다시 11월 1일 메인주 소재 요크에서 은행을 털었으며 솔즈베리(Salisbury, MA)에서 경찰관을 가짜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솔즈베리 토마스 파울러 경찰서장은 한 TV방송국과 인터뷰에서 11월 2일 현재 시몬즈는 도주 중이며 다만 “그가 무장하지 않은 상태”여서 극도로 위험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1일 밤 경찰의 추격을 받았던 시몬즈는 뉴햄프셔 시브룩의 110번 도로에서 충돌을 일으킨 후 도보로 도주 중이다.

매사추세츠와 뉴햄프셔 법집행요원들은 현재 1번도로와 솔즈베리의 플레전트 스트리트를 중심으로 수색을 벌이고 있다.

추격전은 1일 오후 5시 솔즈베리 경찰이 메인의 요크 소재 은행강도에 사용됐던 차량과 일치하는 차량을 정지시키면서 시작됐다. 시몬즈는 경찰관의 얼굴을 가격하고 도주하려다 경찰과 드잡이질을 벌였으며 결국 차에 올라 도주했다.

솔즈베리 경찰은 시브룩까지 그를 추적했으며 시브룩 경찰과 주경찰도 추격전에 합류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많은 좁은 도로로 그가 도주하면서 다른 피해자를 발생시킬 것을 염려해 경찰은 추격을 중단했다.

이 차량은 엘름 스트리트와 가드너 스트리트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하면서 도보로 도주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사고를 당한 차량의 운전자는 다행히 생명을 위협하는 부상을 입지 않았으며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뉴베리포트의 CVS와 요크의 은행에서 강도행위를 벌였을 때 무기를 내보이지 않았다.



마음대로 골라본다

조정된 상품 가격 (5월 1일부터. 무료영화는 6월부터 편당 1불로 변경)



KBS MBC SBS

<p>Plus 상품</p> <p>KBS, MBC, SBS, EBS, YOUTUBE</p> <div style="background-color: #e91e63; color: white; border-radius: 50%; width: 40px; height: 40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margin: 0 auto;"> \$24⁹⁹ </div>	<p>Premium 상품</p> <p>KBS, MBC, SBS, EBS, 케이블/중편, YOUTUBE</p> <div style="background-color: #00bcd4; color: white; border-radius: 50%; width: 40px; height: 40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margin: 0 auto;"> \$34⁹⁹ </div>	<p>VIP 상품</p> <p>KBS, MBC, SBS, EBS, 케이블/중편, 영화/성인, YOUTUBE</p> <div style="background-color: #e91e63; color: white; border-radius: 50%; width: 40px; height: 40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margin: 0 auto;"> \$39⁹⁹ </div>
---	--	---

티보 대리점 모집

각 딜러는 LA 본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며 초기 자본 없이 창업이 가능합니다.
 주요 업무: 신규 서비스 설치 및 기존 고객관리
 연락처: 617.949.1766

총 13개 Live방송중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NOW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연합뉴스TV MBN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육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바둑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














미국 행정부는 4일(현지시간)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100인 이상 사업장에 백신의 무화... "안 맞으면 매주 검사"

연방공무원 이어 민간에도 확대...노동자 3분의 2인 1억명에 적용 "1천200만명 추가 접종 효과" 예상도...공화당 주도 법적 분쟁 예상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4일(현지시간)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연방 공무원과 정부 하청업체 직원에 이어 민간 기업으로도 백신의 무화를 확대한 것이지만, 일부 주 정부 정책과 충돌해 법적 분쟁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직업안전 보건청(OSHA)은 100명 이상의 직원을 둔 민간 사업장에 대해 내년 1

월 4일까지 직원의 백신 접종을 끝내도록 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경우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업무 중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이 규정을 어기면 위반한 건당 약 1만4천 달러(약 1천600만 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새 규정은 미국 노동자 8천400만 명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미 행정부는 이와 함께 정부의 의료보장제도에서 자금을 받는 요양원, 병원, 기타 시설에서 일하는 1천

700만 명에 대해서도 1월 4일까지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이들의 경우 비접종 시 매주 검사 요건이 적용되지 않아 반드시 접종해야 한다. 새 조처는 약 1억 명의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미국 전체 노동자의 3분의 2 수준에 달하는 규모다. 다만 의료적, 종교적 사유가 인정될 경우 접종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백신을 맞는 직원에게는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연방정부 직원, 군인, 연방정부와 계약해 거래하는 하청업체 직원에 대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상태다. 연방 하청업체 직원의 경우 12월 8일부터 이 요건이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시행 시기를 1월 4일로 한 달가

량 늦췄다. 이번 강화된 지침은 미국에서 18세 이상 성인의 69.8%가 백신 접종을 모두 끝내고 80.2%가 최소 1회 접종을 했지만, 접종을 거부하거나 망설이는 이들이 여전히 많다는 인식에서 나왔다. 골드만삭스는 새 규정 적용 시 적어도 1천200만 명이 추가로 백신을 접종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미 행정부는 이 규정이 주 정부의 법률이나 명령보다 우선한다는 입장이지만,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은 일부 주 정부로부터 강한 반발을 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공화당이 차지한 20곳 이

상의 주 법무장관은 연방의회의 법률만이 이러한 규제를 강제할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시사했다고 AP는 보도했다. 지난주 19개 주는 연방 하청업체 직원에 대한 접종 의무화 조처에 반대하며 이미 소송을 낸 상태다. 일부 기업은 이번 조처가 가뜩이나 부족한 노동력 시장의 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불만도 표시한다. 미 행정부는 이 규정이 적용되면 향후 6개월간 25만 명의 코로나 환자 입원을 막고 수천 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jbyoo@yna.co.kr

유가 고공 행진 속 OPEC+, 12월에도 기존 증산 방침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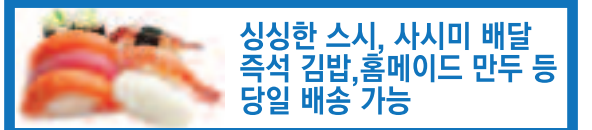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국제유가가 고공행진 하는 가운데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非)OPEC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 플러스'(OPEC+)가 기존의 증산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OPEC+는 이날 석유장관 회의를 열고 매달 하루 40만 배럴씩 증산하기로 한 계획을 다음 달에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이달 하루 40만 배럴을 증산한 산유국들은 내달에도 같은 규모의 증산을 이어가게 됐다. OPEC+는 지난해 합의했던 감산 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8월부터 매달 하루 40만 배럴씩 증산하

기로 뜻을 모았다. 당시 전체 감산 규모는 580만 배럴 수준이었다. 이날 12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2.81% 오른 배럴당 83.15달러에, 1월물 브렌트유 가격은 2.79% 오른 배럴당 84.28달러에 거래됐다.

logos@yna.co.kr



신신마트 당일배송



배달 서비스

EXPRESS DELIVERY

각종 고기와 반찬, 쌀, 라면, 야채, 과자 뿐만 아니라 신선한 생선회(Mr. Sushi) 등을 12시 이전에 주문하시면 안전하게 당일 배송해 드립니다.
\$100불 이상 / 배송비 10불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들은 Free Delivery 해드립니다.

가격과 품질에 정직합니다
정성들여 만든 신신 스페셜

얼큰한 해물 짬뽕국물 (\$7.99)
순두부 (\$7.99)
육개장 (\$9.99)
싱싱한 홈메이드 신신만두 (\$25.00)
(고기만두, 김치만두)

ALL 유기농 늘푸른 농장

한국포도 \$19.99/pack, \$36.00/box
메주콩, 검정콩 \$29.99/5LB
배즙, 포도즙, 대추즙 \$29.99/25packs
마른대추 \$29.99/1bag
고춧가루 \$69.99/3.8LB

신신마트) 978.686.0813 (매장)
781.308.2073 (줄리 안), 781.308.2072 (다니엘 안)

케이터링 문의
한식, 일식, 중식 케이터링 (보스톤 4성급 호텔에 납품하는 허가된 등록업체입니다)
문의 781.308.2073 (줄리 안)



고전 끝에 초반빙으로 당선된 미국 뉴저지 주지사 연임 확정된 필 머피 후보

텃밭 버지니아 내준 민주당, 뉴저지 주지사 고전끝 박빙 승리

승리 기대한 버지니아에선 충격적 패배...내년 중간선거 '빨간불'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미국 민주당이 지난 2일(현지시간) 치러진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 고전 끝에 신승을 거뒀다.
AP통신은 3일 현역 주지사인 민주당 필 머피 후보가 공화당 잭 시아타렐리 후보를 근소한 표차로 이겼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뉴저지에서 연임에 성공한 것은 1977년 이래 4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뉴저지는 그간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텃밭으로 통했고, 선거일 이전 여론조사에서도 머피 후보가 대

체로 10% 안팎의 우위를 보여 낙승이 예상됐다.
그러나 막상 개표가 시작되자 시아타렐리 후보가 앞서 나가고 머피 후보가 뒤쫓으며 시종 엇치락뒤치락하는 피 말리는 승부가 벌어졌다.
CNN 보도에선 개표가 82%가량 이뤄진 상황에서 두 후보 간 표차가 61표까지 좁혀지기도 했다. 초접전 양상이 계속 펼쳐짐에 따라 AP통신의 당선 확정 보도는 투표 이튿날 오후 늦게서야 나왔다.
특히 민주당은 승부처로 여긴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공화당에

패배하는 일격을 당한 터라 뉴저지마저 질 경우 대참패라는 참혹한 성적표를 받아들 위기에 처했었다.
버지니아의 경우 주지사는 물론 부지사, 검찰총장 선거도 공화당이 승리했다.
또 100석의 버지니아 하원 선거는 현재 공화당이 50석, 민주당이 46석을 확보했고, 4석은 당선인이 확정되지 않았다. 민주당 입장에서 마지막까지 선전하면 동수 의석을 확보하거나, 공화당에 다수당 지위를 넘겨줘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선거는 취임 9개월을 갖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중간평가 성격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2곳의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이 모두 질 경우 최근 연이은 약재로 인한 지지율 급락세와 맞물려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주도권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공화당은 버지니아주지사 선거에서 이기고, 뉴저지주지사 선거에서는 패배하긴 했지만 예상을 깨고 초반빙 대결을 벌임에 따라 기대 이상의 선전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또 1년 앞으로 다가온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의회 권력을 탈환한다는 목표 달성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민주당의 경우 민심이 바이든 대통령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

음을 실감하게 된 데다가 역대 중간선거의 경우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점에서 내년 중간선거에 대한 우려감이 한층 더 커지게 됐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반(反)트럼프 구호를 주요 전략으로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 제대로 먹혀들지 않은 셈이어서 여전히 공화당 성향 유권자에게서 압도적 지지를 받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건재할만 확인했다.
AP는 "이번 선거는 바이든 취임 이래 유권자 정서에 관한 첫 주요 시험대였다"며 "민주당이 의회의 근소한 다수석 지위를 유지하려 노력하는 와중에 남은 1년은 고통스러운 해가 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jbryoo@yna.co.kr

연준 "테이퍼링 시작"...일단 11~12월 채권매입 축소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3일(현지시간) 이번 달 말부터 자산매입 축소(테이퍼링)에 들어간다고 알렸다.
작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연준이 제도입한 양적완화 정책 기조의 변화를 2개월 만에 공식화한 것이다.
연준은 이날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성명에서 "작년 12월 이후 연준의 목표를 향한 경제의 상당한 진전을 고려할 때 월간 순자산 매입을 국제 100억 달러, 주택저당증권(MBS) 50억 달러씩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연준은 일단 11월과 12월에 한해 구체적인 채권 매입 축소 계획을 공개했다.

11월 말에 150억 달러의 채권 매입을 줄이고, 12월에는 11월 기준으로 150억 달러의 채권 매입을 감소시켰다는 것이다.
연준은 "이러한 속도의 매달 순자산 매입 감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지만, 경제전망의 변화에 따라 매입 속도를 조절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현재로는 매달이 같은 자산매입 축소를 이어가는 게 맞다고 보지만, 일단은 11~12월에 한해 테이퍼링에 들어간 뒤 상황을 보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지난해 대유행 이후 연준은 장기 금리 억제와 경기 회복 지원을 위해 매달 미 국제 800억 달러와 MBS 400억 달러 등 1천20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매입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건강이 당신의 가족을 지킵니다

'이재명 복심' 정진상, 유동규 압수수색 직전 통화

정진상 "잘못 있다면 감추지 말고 충실히 수사 임하라 당부" 황무성 전 성남도개공 사장 사퇴 압박 의혹으로 피고발...수사 불가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검찰 압수수색 직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복심으로 꼽히는 정진상 현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당국은 유전본부장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기록을 분석한 결과 그가 지난 9월 29일 압수수색 직전 정 부실장과 통화한 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전 본부장은 당시 통화를 마친 뒤 검찰 수사관들이 주거지에 들어 오기 전 휴대전화를 창문 밖으로 집어 던져 폐기를 시도했다.

당시 행인이 주위간 이 휴대전화는 경기남부경찰청이 주변 건물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끝에 찾아내 포렌식을 진행해 왔다.

이 포렌식 결과는 아직 서울중앙지검에 공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실장은 이에 "먼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엄중한 상황에서 사법당국이 범죄와 전혀 관련 없는 특정 개인에 대한 수사 내용을 일부 언론에 흘려 흡집 내리는 행태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어 "당시 녹취록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상황에서 평소 알고 있던 유전 본부장의 모습과 너무나 달라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통화에서 유전 본부장에게 잘못이 있다면 감추지 말 것과

충실히 수사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정 부실장의 입장문대로라면 당시 전화는 정 부실장이 먼저 걸었던 셈이다.

수사당국은 유전 본부장이 위기 상황에서 정 부실장과 통화한 만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긴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유전 본부장을 상대로 당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수사당국 주변에선 정 부실장 이름이 이번 사건에서 곳곳에 거론되는 만큼 그에 대한 직접 조사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성남시 정책실장으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최측근에서 보좌했던 정 부실장은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사퇴를 압박당하는 녹취록에서도 언급된다.

황전 사장이 공개한 유한기 당시 개발사업본부장과의 녹취록에는 그를 지칭하는 '정 실장'이 여러 차례 등장했다. 이와 관련해 정 부실장은 이 후보와 함께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돼 있다.

이날 정 부실장이 입장문을 한 차례 수정한 것을 두고도 말이 나온다.

정 부실장은 처음 낸 입장문에서 통화 사실을 흘린 주체를 '검찰'로 썼다가 곧바로 '사법당국'으로 바꿔 수정 입장문을 냈다.

정 부실장 측이 검찰에서 이 같은 정보가 나간 게 아니라는 사실을 검찰에서 확인해 주체를 바꿨다는 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검찰 압수수색 직전 이불을 쓰고 누워 약을 먹겠다고 했으며 또한 한 사람과 통화를 나눴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통화를 나눈 사람이 정진상 현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장이라고 밝혔다.

석 가능성이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정 부실장의 입장문이 나온 뒤 "검찰은 이와 관련한

어떤 내용도 언론에 알려준 사실이 없다"며 "향후에도 수사팀은 당사자의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냈다. jujuk@yna.co.kr

유동규 "텔레그램 비번 기억 안나", 사실상 수사협조 거부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최근까지 사용했던 새 휴대전화 속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의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사법당국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4일 연합뉴스 취재 결과 수감 중인 유전 본부장은 자신의 텔레그램 비밀번호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전담 수사팀은 지난달 25일 유전 본부장 측 변호인이 참여한 가운데 휴대전화 데이터 복구·분석 작업을 진행했다.

당시 경찰은 통화 기록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의 복구·분석 작

업에 착수했지만, 텔레그램의 경우 비밀번호가 별도로 설정돼 있었고 유전 본부장 측 변호인이 이 번호를 알지 못해 열어보는데 실패했다.

이에 유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다음 데이터 복구·분석 작업을 진행할 때 텔레그램 비밀번호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경찰에 밝혔지만, 변호인은 최근 유전 본부장을 접견하러 고도비밀번호를 건네받지 못했다.

포렌식이 진행 중인 유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는 올해 9월 중순 개통한 것으로, 그는 같은 달 29일 검찰이 자택 압수수색을 나오자 9층 거주지 창문 밖으로 던져 은폐를 시도했다. 유전 본부장이 이 휴대전화를 개통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은데다가 이미 한차례 은폐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수사당국 인품에서는 그가 텔레그램 비밀번호를 고의로 제공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음 포렌식 일정 이 결정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지연되는 이유 등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며 "변호인과 협의해 조속히 다음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전 본부장이 검찰 압수수색 직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복심으로 꼽히는 정진상 현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과 통화한 사실이 이날 알려지면서 유전 본부장이 이 휴대전화로 누구와 어떤 내용의 통화를 했는지에 대해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zorba@yna.co.kr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H MART

BURLINGTON WEEKLY SALE NOV. 5th - NOV. 11th, 2021

SUMMER ENDS SAVING STARTS

PLEASE TURN BACK YOUR CLOCKS 1 HOUR ON NOV. 7TH (SUN.) AT 2AM. 1시간 뒤로 돌려놓으세요!

11월 7일 (일요일) 새벽 2시부터 썸머타임이 해제됩니다. 시계를 H마트와 함께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 Join the H Mart Social Distancing Campaign, to help slow down the spread of COVID-19 for you and our H Mart family. 몸의 거리는 넓히고, 마음의 거리는 좁혀야 할 시간. H마트 고객분들과 직원분들의 안전을 위해 6피트 안전 거리를 확보해주세요! Keeping 6 feet apart will bring us together again.

Follow us @hmartofficial H MART MA ID : @hmart_ma

ZESPRI SunGold Kiwi 제스프리 선 골드 키위 BOX \$24.99	Fuji Apple 후지사과 PREMIUM QUALITY LB \$1.49	SOONYEOWON Tofu 수녀원 두부 SILKEN/SOFT/FIRM 14-16 OZ/PKG \$1.29	California Persimmon 캘리포니아 단감 BOX \$19.99	NONGHYUP Pear Juice 농협 한국산 보배과즙 PRODUCT OF KOREA 100 ML X 16 EA/BOX \$12.99
Sweet Potato 코이모 고구마 LB \$2.49	White Cabbage 화이트 양배추 LB \$0.79	Idaho Potato 아이다호 감자 LB \$0.79	Kabocha 단호박 LB \$0.99	Onion 양파 10 LB BAG \$5.99

신선한 정육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Fresh Beef Top Blade Steak 생 부채살 (낙엽살 스테이크) LB \$10.99	Fresh Beef Flank Steak 육개장용 생 앞치마 양지 LB \$9.99
Fresh Pork Single Belly Chunk 수육용 생삼겹살 LB \$7.99	Fresh Chicken 생 통닭 WHOLE LB \$1.99
Marinated Sliced Beef Ribeye Bulgogi 양념 소불고기 LB \$8.99	Frozen Spicy/Teriyaki Sauce Chicken Skewers 냉동 데리야끼/불닭꼬치 닭꼬치 10-11 OZ/PKG \$6.99

싱싱한 수산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TONGTONGBAY Frozen Seafood Mix 통통배양동해물모듬 12 OZ/PKG \$3.99	NETUNO Frozen Clams NETUNO 냉동백합조개 1 LB/PKG \$3.99
Frozen Beltfish 냉동 통갈치 LB \$4.99	TONGTONGBAY Seasoned Dried Filefish 통통배 쥐포 12 OZ/PKG \$9.99
Headless Dried Shrimp 두절 건새우 LB \$29.99	Fresh Salmon Steak 생 연어 스테이크 LB \$7.99

SMART CARD MEMBER ONLY

H MART SMART CARD ONLY KYONG GI ME U.S. No. 1 Medium Grain Rice 경기미 40 LB \$34.99	H MART SMART CARD ONLY HAIUREUM Canned Bai Top Shell 해오름 골뱅이 통조림 14.1 OZ \$5.99
H MART SMART CARD ONLY HAIO Yuza Tea with Honey 해오름 유자차 2.2 LB \$5.99	H MART SMART CARD ONLY FOODCELL Asian Style Starch Noodles Vermicelli 푸드셀 궁중당면 1.5 LB \$3.49

SEMPIO Soy Sauce for Soup 샘표 국간장 31.4 FL OZ \$3.99	ARIZONA FARM Honey Powder 아리조나팜 꿀가루 1 LB \$2.49	GOMPYO Wheat Flour 공표 중력 다목적용 밀가루 5.5 LB \$3.99	CHUNGJONGE Dried Seaweed 청정원 남해안산 청정미역 7.05 OZ \$5.99
I'M E Minsaeng Ramen I'M E 민생라면 4.05 OZ X 5 EA/PKG \$2.99	HOUSE FOODS Vermont Curry 하우스 버몬트 카레 MILD/MED. HOT/HOT - 8.11 OZ \$2.99	DONGWON Canned Tuna 동원 참치 통조림 LIGHT STANDARD 5.29 OZ X 4 CANS/PKG \$8.99	HANSANG Seasoned Small Octopus 한상 동원 얼짱 쭈꾸미 1.43 LB \$16.99
SEMPIO Rice Noodles (Somen) 샘표 쌀 소면 1.76 LB \$4.99	HAITAI Matdongsan Peanut Crunch Snack 해태 맛동산 10.58 OZ \$3.99	DONGWON Shrimp Cutlet 동원 통살새우가스 16.93 OZ \$5.99	HELLO HOME Label Point Slipper 헬로홈 라벨 포인트 실내화 MEN - GREY/BROWN (XL/XXL MIX) WOMEN - PINK/MINT (M/L MIX) \$4.99
ORION Turtle Chips 오리온 꼬북칩 2.82 OZ X 7 EA/BOX \$9.99	HELLO! Lined Mug Set 헬로! 줄무늬 머그 세트 2 PCS SET \$8.99 PAIR \$6.49	SHOES ME Cushion Slippers 슈즈미 쿠션슬리퍼 MATTE BLACK/GLITTER BLACK/SILVER (240MM/250MM MIX) \$7.99 PAIR \$13.99	

프리미엄 김치 브랜드
1000 YEAR KIMCHI
TASTE THE BOLD TRADITION

유산균 김치 / 100% 천연재료 사용

CUSTOMER SERVIC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This ad only pertains to our our Burlington location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음식점으로 성공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CONTACT: me@hmart.com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사장 나원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부사장 애나 정
617.780.1675
Boston Branch Manager
anna@bostonpremierrealty.com



이사 이제봉
781.654.5281
South Shore Branch Manager
jeblee@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박성종
617.304.7001
Director & manager of Newton branch
sj@bostonpremierrealty.com



Steve Kwon
508.326.6285
Director of HR/Customer relationship
Steve@bostonpremierrealty.com



Kathy Eunsuk Song
413.313.4165
Manager of Hadley Branch
kathysong2019@gmail.com



크리스틴 손
773.968.2651
christine@bostonpremierrealty.com



신보경
508.361.6064
boshin@bostonpremierrealty.com



줄리 전
978.494.2043
julie@bostonpremierrealty.com



오성빈
978.505.3736
osb@bostonpremierrealty.com



Nikkie Park
617.447.0591
nikkiepark@bostonpremierrealty.com



이현주
401.935.3397
hyunju@bostonpremierrealty.com



최은경
781.690.4389
chrischoi@bostonpremierrealty.com



사라 유
617.838.5787
sara@bostonpremierrealty.com



Rick Shin
781.530.0034
ricks@bostonpremierrealty.com



이준균
617.543.5728
jun@bostonpremierrealty.com



다이애나 김
617.271.2037
diana@bostonpremierrealty.com



Shirley Zhao
857.231.0316
shirley.zhao@bostonpremierrealty.com



지나 최
978.866.3248
gina@bostonpremierrealty.com



최진민
617.877.0387
jinchoi52@bostonpremierrealty.com

제이콥 신 617.710.8836
jacob@bostonpremierrealty.com

앤드류 리 857.540.1588
andrew@bostonpremierrealty.com



피터 주
617.780.7839
peter@bostonpremierrealty.com



이영순
781.800.3412
bostonyi@bostonpremierrealty.com



송문주
213.503.0397
marcia@bostonpremierrealty.com



미키 최
413.507.1402
mickichoi@gmail.com



한혜숙
781.999.1214
hhan@bostonpremierrealty.com



샬리 임
781.690.4309
hyunmi@bostonpremierrealty.com



Ritika Chopra
617.697.1191
rchopra@bostonpremierrealty.com



비비안 유
617.935.2713
vivian@bostonpremierrealty.com



Nancy Wang
617.230.9952
nancywang6000@bostonpremierrealty.com



황수진
617.538.6973
sujinhwang1@gmail.com



레이첼 김
617.852.7485
rachelkim@bostonpremierrealty.com



Jason Chen
978.277.8439
song@bostonpremierrealty.com



Henry Nguyen
617.803.8341
henry@bostonpremierrealty.com



John Tran
617.406.9852
john@bostonpremierrealty.com



차민영
651.402.5194
minyoung@bostonpremierrealty.com



제이크 김
781.956.0409
drjakekim@bostonpremierrealty.com



PREMIER WORKS

좋은 사람들이 우리집처럼 여기고 정성껏 일하는 PREMIER WORKS. 각각 다른 레벨의 일에 맞는 인력이 투입되어서 비용을 절감합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인력이 공정 관리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정성을 다합니다.

홈 리노베이션, 홈 익스텐션, 핸디맨잡, 배관, 전기, 난방, 커머셜/식당 디자인 시공.

“ I just wanted to say thank you for a job well done. The floors look terrific! I know the project was a challenging one, but I'm happy to say you and your team more than met the challenge. In addition, a concern I've had with contractors is not following up with loose ends. I'm happy to report all follow up requests were completed in a timely manner. In short, I highly recommend and will continue to use Premier Works for all of my flooring needs!

Sincerely, Mr. M. Malden, MA ”

PREMIER WORKS
617.838.4980
support@bostonpworks.com



Property Management


여러분의 소중한 투자건물을 관리해 드립니다. 건축가, 부동산, 건축시공 전문가들이 함께 관리 합니다. All size condo, single family, multi family, commercial, Hands Free, All in One Service

렌트비 관리, 유지관리, 테넌트관리



Premier Realty Group
617.515.1162
info@bostonpremierrealty.com

WEEKLY SPECIAL




10 Nouvelle Way

Listed Yesterday,
Offer Accepted Today !!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
Overseas Voting for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세계 속의 한국인
**민주주의
꽃
피우다** 

Koreans around the World,
Democracy Blossoms!



투표하려면,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신고·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To vote for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overseas absentees and voters are required to complete
the registration in advance.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Overseas Absentee Report Period
October 10, 2021 – January 08, 2022

**2021.10.10.~
2022.01.08.**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Registration for Overseas Voters
by January 08, 2022

~2022.01.08.까지

신고·등록신청 방법

How to Register as
an Overseas Absentee or an Overseas Voter

- 인터넷 이용(ova.nec.go.kr)
On the Internet(ova.nec.go.kr)
- 공관방문 / 순회접수
Visiting the diplomatic mission or
a mobile office
- 우편 이용 / 전자우편(e-mail) 이용
By post or e-mail

투표기간

Voting Period
February 23, 2022 – February 28, 2022

2022.02.23.~02.28.

- ※ 기간 중 공관별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 The voting days may vary by diplomatic mission
within the set overseas voting period.

신고·등록신청은
인터넷으로 간편하고 빠르게!

Report or register quickly and
easily on the Internet!



◀ 신고·등록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Go to the website for
the registration
ova.nec.go.kr

※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ok.nec.go.kr) 또는
외교부 홈페이지(mofa.go.kr) 참고

※ Refer to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Overseas Voting (ok.nec.go.kr) or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ofa.go.kr)
websites for more information



간편하고 신속한 주택용자

안녕하세요, 켈리 김입니다. 개인주택을 꿈꾸는 모든 분들은 자신의 여러 상황 때문에 개인주택 소유의 꿈을 접기도 합니다. 20년간 겪어온 많은 모기지 대출 경험으로 완벽한 대출매칭을 설계해 드립니다.

현금 인출	모기지 재용자	후회없는 최상의 결과로 만족시켜 드립니다.
낮은 이자율	사전 승인	

상담 및 신속 진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연락주세요.

617.733.5014

Testimonial

투자용 주택 구입을 위해 용자 받을 곳을 알아보느라 몇 군데의 모기지 에이전트들과 통화했고 상담했었습니다. 이유는 주변에 용자가 나오지 않아서 고생했던 분의 경우를 보았기 때문에 모기지 회사나 은행을 정하는게 얼마나 중요하지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자율도 비교해보라는 리얼터분의 조언에 따라 여러 군데 연락을 해봤었는데 결국은 켈리님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켈리씨는 저희의 필요와 상황에 맞는 용자 상품을 잘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했던 용자 금액보다 좀 더 많은 용자금을 받도록 해주셔서 좀 더 수익이 많이 나는 큰 매물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구애 받지 않는 맞춤 서비스가 편했습니다. 밤늦은 시간도 마다하지 않고 1시간이 넘도록 상담해 주셨고 이후에 서류를 준비 해야할 때에도 준비할 때마다 생기는 수많은 질문에도 늘 빠르게 답 해주시고 문자 주시는 등 밤늦도록 저를 위해 일해주시는 모습에 신뢰가 쌓였습니다. 용자 받을때 서류를 많이 준비해야 하고 갑자기 필요한 서류가 생겨서 걱정스러웠던 예전 경험에 비해 이번엔 정말 수월하게 필요한 서류를 준비 할 수 있었습니다. 켈리님의 능숙한 업무 처리 능력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용자 받으실 일이 있으시면 저희처럼 Ridus의 켈리님과 함께 하시면 후회 없으실 겁니다.



Julie Jun
Boston Premier Realty
978.494.2043

저와 남편은 노후 대책으로 월세받을 집을 언젠간 구입하려고 생각만 하다가, 요즘 이자가 낮으니 좋은 찬스라는 리얼터 줄리 전님의 추천으로 앞으로 집값 오르고, 렌트가 잘 나간다는 동네에 오픈하우스 다니기 시작한지 두달만에 결국 원하던 멀티 하우스를 하나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세입자가 있는 집이라서 클로징 끝나고 몇주 후에 바로 렌트비도 받았는데, 늘 노후대책 걱정만 하던 제가 하나의 숙제를 해결했다는 안도감에 기뻐했습니다. 리얼터 줄리씨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일사천리로 빨리 하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리얼터님을 그냥 믿고 따라갈 수 있었던건 줄리씨가 저희에게 그동안 보여준 신뢰와 실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6년전 저희 첫집을 구입할때도 얼마나 성실히 잘 도와주셨는지 집에 대해 하나도 모르던 저희에게 차근차근 모든 설명을 다해줬으며, 집값 오를만한 지역을 골라줘서 다들 저희 집 좋은 가격에 잘 샀다고 한답니다. 집 구입 이후에도 시시때때마다 집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알려주기도 하고, 급하게 수리할게 생겼을때에도 연락하면 바로 일잘하는 핸디맨도 소개해주십니다. 저희 집에 관한 모든 내용을 다 잘 알고 있는 든든한 저희집 담당 리얼터랍니다. 자주 연락드려서 귀찮아 하지 않을까 걱정도 하지만 늘 반가운 목소리로 전화 받아주어서 통화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죠. 집에 관해선 모든걸 맡아서 해주시니 집 관련 해서는 걱정이 없네요. 리얼터 줄리님과 좋은 인연이 저희의 노후대책까지 준비되서 늘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켈리 김 Licensed in MA, NH, RI, FL, NJ
Kellie Kim Thielen

주택대출 전문가
nmls #2027241
617.733.5014
kkimthielen@radiusgrp.com



여러분의 사업의 동반자! 온라인 주문과 예약이 가능한 컴퓨터

- 식당 온라인 오더와 온라인 페이먼트를 한자리에서 해결
- 헤어와 네일 살롱의 온라인 예약과 온라인 페이먼트를 컴퓨터로
- 다양한 옵션을 완비한 디펜더블 컴퓨터로 간단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식당	살롱
온라인 음식 주문과 지불 epipay™	온라인 예약 관리 epiday™
온라인 매장 관리	온라인 매장 관리
고객 관리	고객 관리
디지털 마케팅	디지털 마케팅
GIFT CARD 프로그램	GIFT CARD 프로그램
종업원 관리	종업원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머천트 서비스 제공, 컴퓨터와 연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세탁소, 식당, 살롱 컴퓨터 세일, 설치, 트레이닝, 아프트 서비스 제공. 무료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디펜더블 컴퓨터 781.858.1155, 781.727.4325

Email : mchae@dependableusa.com
web : dependableusa.com

"Dependable Computer is an authorized independent reseller of United POS Solutions, Inc."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t. Anthony (Dubleu) Parish (Korean Church)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은 새 입교자를 위한 교리반을 9월 중순에 시작합니다.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주일 미사 (Sunday)
오전 9시 30분 (English)
오전 11시 (Korean)
오후 4시 30분 (Korean)

평일 미사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매달 첫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Contact: stadparish@gmail.com 617-538-2711

45 Ash St, Newton MA 02458 / 617-668-2711
stadparish@gmail.com / stadparishchurch.org
www.facebook.com/stadparish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살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경렬

HANNDYMAN ANDY **핸디맨 앤디**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381.9519**
508.685.7688

초이스 간판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성경대로 믿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LOVE FIRST
PRESBYTERIAN CHURCH

담임 목사: 권총상
Faith Theological Seminary, M.Div.
New York Univ. M.E.
한양대학교 대학원
한기중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오후 2시
주일 학교	오후 2시
전도원 공부	오후 4시
화요 공부	오후 7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구역 예배	각 구역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St, Littleton, MA 01460 Tel: (978) 696-3293, (978) 844-2404
www.lovesfirstchurch.com

보스톤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중고동부: 오후 2시	대학부모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617.969.5803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예수님을 알고
그를 알리자

<예배시간>
주일: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우스터한국교회: 토 9:30~12:30

담임목사: 김현태
617.780.4178

114 Main St, Worcester, MA 01608
Fax: 508.799.4488
<http://workmc.org>

골프 레슨

US GTF **최성조 프로**
UNITED STATES GOLF TEACHERS FEDERATION
Leader in the Field of Golf Instruction

Master Golf Professional
매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sj.usgtf@gmail.com

857.600.6755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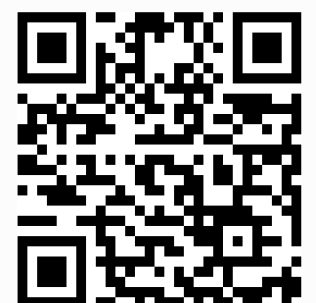


백신을 접종해

#여러분의 가족을 보호하세요

무료 코로나-19백신을 접종받으세요
 신분증, 건강보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백진접종장소를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찾으세요
[MASS.GOV/COVIDVACCINE](https://mass.gov/covidvaccine)



Asian American Civic Association



Eastern Bank

JOIN US FOR GOOD

보스톤 전망대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은한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

계원필경 (桂苑筆耕) 2

황소의 난결말(875-884)

황소는 880년 60만의 대군을 이끌고 수도 장안을 점령하고 황제의 위에 올랐다. 황소는 그의 심복 주운을 출병시켜 관군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려고 하였는데 커다란 변수가 생겼다. 주운이 당나라에 투항하여 형세가 역전되고 투르크계 사타족 출신인 이극용이 수도 장안을 탈환하여 형세를 역전시켰다. 그래도 황소는 4년동안 계속 대항했으나 하남성 일대에서 관군에게 대패하고 황소가 자결함으로 10년에 걸친 반란이 끝나게 되었다.

반면에 황소 토벌의 책임을 맡은 절도사 고병은 관찰지인 양주에 계속 머무르면서도 수도 장안을 점령하고 있는 황소군에 대한 공격이 없었다. 그래서 고병은 반란의 의심을 받게되고 882년에 파직을 당해 독립 군벌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후일답이지만 고병은 모든 군무에서 손을 떼고 평소에 탐악해왔던 도교의 신선술에 몰두하여 측근 여용지(呂用之)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신선이 될 일에만 전념하고 있었다. 이에 부하 병마사 필사탁이 반란을 일으켜 고병을 제거한 것이다.

우리가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고병이 파직된 882년부터 884년간의 최치원이 기록에 남아 있지 않은 것이다. 882년은 황소의 난이 마무리 되는 때로 최치원은 당희종으로부터 자금어대(紫金魚袋)를 하사받게 된다. 이는 당나라 황제가 정5품 이상에게 하사하는 붉은 주머니를 말한다. 지금으로 말하면 최치원에게 "토황소격문"으로 적을 무찔렀다고 무공훈장을 달아준 것이다.

최치원 돌아오다

최치원은 헌강왕 10년(884) 신라사신으로 회남에 왔던 김인규와 사촌동생 최서원으로 부터 고국 신라의 소식을 전해 받게 된다. 최치원은 지금까지 자신을 돌보아 주던 고병 절도사가 파직을 당하고 죽은 이상 당나라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었다. 그는 29세때인 886년에 신라로 돌아온다. 17년만에 돌아온 것이다. 헌강왕은 그에게 시독경, 한림학사, 병부시랑에 임명하였다. 시독은 국왕과의 경연을 주관하는 중요한 자리이고 한림학사는 외교 문서를 작성하고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였다.

그는 당나라에서 온 생애를 걸쳐 심혈을 기울여 편찬한 계원필경 20권을 헌강왕에게 바치고 귀국한 즉시 왕명으로 대승복사비문의 명문을 남겼다. 그러나 호사다마라고 그 이듬해에 헌강왕(886)이 사망하고 정강왕이 즉위했으나 그 역시 1년후에 사망하여 진성여왕이 즉위하게 되었다.

귀국초기에 최치원은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당나라에서 배운 경륜을 펴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진골 귀족 중심의 독점적인 신분체계의 한계와 국정이 문란함을 깨닫고는 외직

을 자원해서 890년에 대산군(전북 태인), 천령군(함양), 부성군(서산) 등지의 태수가 되었다. 천령군 태수로 있을때는 읍성을 흐르던 위천수가 범람하자 강쪽을 지금의 위치로 돌리고 지리산의 나무를 심어 지금까지 이어오는 상림숲을 조성했다고 한다.

부성군(서산) 태수로 있던 893년에는 당나라로 가는 사신으로 내정되었지만 도둑들이 들끓어 가지 못한 적도 있었다.

진성 여왕 연간에 신라사회는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 889년 진성여왕 3년에 주, 군에서 세금 납부를 독촉하자 농민들이 사방에서 봉기해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를 원종과 애노의 난이라고 부른다. 반란이 어떤 식으로 결판이 났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결국 진압은 되었지만 이 반란의 후폭풍은 신라를 패망의 길로 재촉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이제는 온 나라가 내란에 돌입하게 되었다.

최치원은 이미 당나라에서 10여년 동안 황소의 난을 체험한바 있었다. 895년 내란의 와중에서 해인사 경내에 공양탑을 세울 때 당시의 처참한 상황에 대해 최치원은 "당나라에서 벌어졌던 재앙이 서쪽 당나라에서는 멈추었는데 동쪽 신라로 옮겨와 굶어죽고 전쟁으로 죽은 시체가 들판에 별처럼 흐트러져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었다.

당시 해인사에 있었던 공양탑은 길상탑(吉祥塔)이라고 부르는데 오랜 내란으로 전멸한 승병들을 위해 해인사 스님이 895년에 건립한 위령탑이었다. 탑은 해인사 경내에 보전되어 있지만 1966년 탑 안에서 탑지 4매와 석탑 공양물이 나왔는데 4매의 탑에 관한 기록은 최치원 선생이 작성한 것으로 현재 국립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최치원은 894년 시무책 10여조를 진성여왕에게 올려 문란한 정치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하였다. 10여년동안 중앙과 지방의 관직을 거치면서 귀족들의 부패와 사회모순을 목격한 결과 구체적인 개혁안을 제시한 것이다. 6두품 출신 지식인들을 등용하여 유교적 정치이념을 통한 왕권강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었다. 시무책은 진성여왕에게 받아들여지고 최치원은 6두품으로는 최고 관등인 아찬에까지 오르게 되었지만 정작 개혁의 열쇠를 쥐고 있는 진골 귀족들이 즉각 반발하여 시무 십여조는 불발로 끝나버린다.

이에 진성여왕은 도적들이 봉기하는 것은 자신이 부덕한 소치라고 과실을 인정하고 진성여왕 11년(897)에 조가 효공왕에게 양위하였다. 진성여왕은 양위한지 반년만에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사망하였다.

삼국사기 기록에는 진성여왕이 자신의 삼촌인 각간 위홍과 좋아 지내더니 항상 궁에 들어와 일을 보게 하였다고 한다. 당시 신라



하동 운암 영당 최치원 초상화, 1793년(정조 17년)에 제작



장풍생만학 적업추산공



봄에 칙꽃을 시작으로 매화, 배꽃, 철쭉, 녹차꽃 등이 초겨울까지 순서대로 만개한다



화개라는 이름은 눈속에서 칙꽃이 핀다는 의미에서 유래하였다



최치원이 함양군수를 지내며 홍수피해를 막기 위해 만든 상림숲

에는 삼촌과 조카딸이 서로 사랑을 할 수 있었다. 위홍과 대구화상이 삼대목(三代目)이라는 향가집을 수집했다는 사실은 모두에게 알려진 사실이었다.

진성여왕에 이어 최치원도 신라 왕실에 대한 실망과 좌절감을 느낀 나머지 41세의 장년에 관직을 사퇴하고 해인사로 은거를 한다. 자신의 친형인 현준 스님이 해인사의 승려였기 때문이었다. 은퇴 후에 전국을 유람했는데 경주 남산, 합천의 빙산과 청량사, 지리산 쌍계사, 부산 해운대, 창원 월영대 등에 그의 발자취가 남아있다.

최치원은 자신의 호인 해운을 동백섬 바위에 새겨 그것이 지금까지 지명으로 이어져 해운대란 지명이 만들어졌다. 조선시대에도 신라사람으로는 설총과 함께 최치원이 문묘에 배향되었다. 저서는 일부만 기록하면 계원필경, 쌍녀분, 제왕연대력, 김수로왕의 신화를 기록한 석이정전, 석순응정 등이 있다.

불교 승려들과 관련된 서적을 많이 구독하고 집필한 이유는 불교수업을 호국의 수단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최치원은 후학들에게 "집에 들어와 효도하고 나아가서는 나라에 충성하는 것은 공자의 가르침이었고, 자연 그대로 행하고 말없이 가르침을 행하는 것은 노자의 뜻이며 모든 악한 짓을 하지 않고 선을 받들어 행하는 것은 부처의 교화"라고 후학들을 지도하였다.

최치원은 경주 최씨의 시조이지만 무덤을 남기지 않았다. 말년에 후학을 지도하면서 학사제 앞에 지팡이를 꽂으며 내가 살아 있다면 지팡이도 살 것이니 학문에 열심히 하라는 말과 함께 갖과 집신만 남기고 홀연히 사라졌다는 내용만 전한다.

삼국사기 최치원전에 계림은 시들어 가는 누런 잎이요, 개경은 푸른 숲이라는 구절이 있어 그는 이미 신라가 망하고 고려가 흥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658) 연말 재정계획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2021 한해가 마무리되기 전에 투자자가 고려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순서 없이 함께 알아본다.

*직장인이 할 수 있는 401(k), 403(b), TSP, 등에 은퇴 투자:

한 해에 노후대책으로 투자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19,500이며 50세 이상은 \$6,000 (Catch-up)을 더하여 최대 \$26,0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은퇴를 위한 투자금액은 세금 유예를 받는다. 직장인 수입세가 24%라고 가정하면 올해 세금 \$6,240을 적게 낼 수 있고 주 정부에 내야 하는 세금 역시 그만큼 적어진다.

*비상금 마련의 중요성:

생각하지 못했던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잘 다니던 직장에서 회사사정, 건강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예측할 수 없는 일에 대한 준비로 생활할 수 있는 비상금이 은행에 준비되어 있어야 노후대책으로 중단없이 꾸준히

투자할 수 있다.

*은퇴를 위한 투자,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IRA):

직장인이나 자영업이나 수입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다. 50세 미만은 매년 \$6,000 그리고 50세 이상은 \$7,000씩 할 수 있다. 직장인이 봉급 일부를 매달 투자(Dollar Cost Averaging)하는 것처럼 개인이 금융기관을 연결하여 매달 \$500씩 자동으로 투자하는 것이다. 수익률 7%로 계산해서 \$6,000씩 25년 하면 약 \$40만 불, 30년 \$60만 불, 그리고 35년은 거의 \$90만 불이 된다. 올해 현재(10월 말) 주식시장은 약 22% 상승하고 있다.

*RMD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올해 나이가 72이면 은퇴 투자에서 정부가 요구하는 금액을 찾아야 하는데 이것을 RMD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정해진 액수를 인출하지 않으면 벌금이 찾아야 하는 액수에 대해서 무려 50% 벌금을 내야 한다. 한해

가 가기 전에 잊지 말고 인출해야 하는 이유이다. 올해 72가 되는 분은 마감일이 2022년 4월 1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

*직장인 Roth 401(k):

직장인의 Roth 401(k)은 해마다 정해진 액수를 계좌에서 반드시 인출해야 한다. Roth IRA는 이러한 규정이 없기에 혼동할 수 있다. Roth 401(k)에서 요구되는 RMD를 피하고 싶으면 Roth IRA로 이전(Rollover)하면 된다.

*IRA 계좌에서 비영리 기관에 기부:

은퇴계좌에서 RMD로 인출하는 자금을 비영리 자선단체에 기부하면 최대금액 \$100,000까지 세금이 면제된다. 은퇴자 많은 사람이 이것을 이용하여 출석하고 있는 교회나 학교 등 정부에 등록된 자선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주식시장은 투자 위험성:

요즘 뜨거운 몇 개 회사에 투자하는 것보다 미국 500대 기업(S&P 500) 혹은 3,500개 기

업으로 구성된 주식시장 전체(Total Stock Market)에 투자하는 것이다. 한 종목으로 여러 회사 투자로 분산 투자가 되고 투자경비도 매우 저렴하다. 지난 12년 연평균 수익률은 15%로 높은 수익률이다. 이런저런 생각으로 투자하지 못했다면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받을 수 없다.

은퇴가 가깝고 이미 은퇴한 투자자는 100% 주식투자는 매우 위험하다. 나이, 위험성, 자산 금액, 등을 고려하여 주식, 채권, 머니마켓, 등에 자산분배 후 분산 투자해야 한다.

한해를 마감하며 내가 조절(Control)할 수 없는 일에는 무관심하며, 본인 자신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후대책을 준비하자. 나이가 들어 돈(Money) 없는 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낙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장기 투자하면 내 돈이 불어날 확률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주식시장 역사가 분명 보여준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郎世紀), 22세 풍월주(風月主) 양도공(良圖公)(10)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생부는 지증왕인데, 지증왕이 왕위에 오르기 전, 김원종을 임신한 연제부인이 소지왕의 배문지름/마복을 받고, 즉 소지왕과 색사를 하고 아들인 원종을 낳았다. 법흥왕은 마복칠성의 우두머리였다. 마복칠성(358)이란 가장 신분이 높은 7명의 마복자를 말한다).

그럼 낭도로서 낭도가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되는 '상선과 상랑의 마복자'는 어떻게 태어났는가? 임신한 낭도의 처들은 살아 숨쉬는 쌍생(雙生)을 예물로 받들고 화랑들이 거처하는 선문(仙門)에 들어가 탕비(湯婢)가 되었다. 그리고 주된 목적인 화랑들로 부터의 마복을/총애를 기다렸다. 이 기간이 며칠이 될 수도 있었고, 심지어 몇 달이 될 수도 있었다. 그러다 화랑과의 색사를 한 낭도들의 처는 선문을 나왔다. 부인이 집으로 돌아올 때는 남편이 고가의 예물을 받들고 맞이해야만 했다. 그리고 해산일이 다가와 출산을 하여 아들이 태어나면 부인은 다시 선문으로 들어가야 했다. 아마도 마복자를 아버지에게 인사시키게 하기 위함으로 사료된다. 이때도 많은 예물을 갖추어야만 했는데 이때의 예물은 평이 아닌 양과 돼지를 몰고 가야 했다. 낭도로서는 많은 부담이 아닐 수 없었다. 이런 풍습은 많은 폐단을 몰고 왔는데, 낭도들이 바치는 예물로 인한 재물/재산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박한 여인들의 거짓 임신이 더욱 큰 문제였다. 그들은 임신도 하지 않은채 거짓으로 칭하고 선문으로 들어가 임신을 하기 위하여 선문의 예물들과

사통을 하기도 하였고, 또한 화랑들의 아들을 출산하기도 하였다. 폐단이 늘어남에 22세 풍월주 김양도는 '임망의 법'을 개혁하여 '사함(謝函)의 풍속 - 감사 예물을 바치는 행사' 없앴다. 화랑세기에 전하는 그내용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임망의 법에는 상선과 상랑의 마복자가 아니면 될 수 없었다. 그러므로 낭도의 처들은 임신을 하면 곧 산평을 예물로 하여 선문에 들어가 탕비가 되었는데, 몇 날 또는 몇 달만에 총애를 얻으면 물러났다. 물러날 때 그 남편은 재물을 들어 예물 갖추고 맞이했다. 이름하여 사함(謝函)이라 했다. 아들을 낳아 석 달이 되면 다시 들어가는 데 양과 돼지를 예물로 했으며, 또 세함(洗函)이라고 했고 몇 날이나 몇 달만에 총애를 받으면 물러났다. 그 남편은 또 사함(謝函)을 다하여 맞았다. 이로써 낭도가 아이를 많이 낳으면 곧 그 재산이 기울게 되었다. 경박한 여자는 선문에서 놀고자 하여 임신을 했다고 거짓으로 칭하고 들어가 탕비가 되었는데 임신이 안 될까 염려하여 선문의 예물들과 사통을 했으며, 혹은 선종(仙種)을 얻어 돌아오니 폐단이 더욱 심했다. 공이 비로소 임망의 법을 개혁하여 인재를 뽑고 사함(謝函)의 풍속을 금했다. 낭도들이 크게 기뻐했다.]

김양도가 취임과 동시에 과단성있게 조금은 급진적으로 낭정의 폐단을 개혁하였다. 가장 대표적으로 모든 낭도의 딸들을 봉화(奉花)라 이름하여 선문에 들게하여 화랑들의 총애

를 받은 후에야 낭도들과 결혼할 수 있는 풍습이었다. 또한 낭도들의 부인들도 임신을 하면 곧 선문에 들어가서 화랑들의 총애를 받아 그 임신한 아들이 화랑의 마복자가 되어야만 남편들인 낭도들의 직급이 올라 갈 수 있었다. 이런 폐단들을 과감히 개혁하니 일부 화랑들은 김양도의 전횡이 심하였다고 불평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양도는 조금도 개의치 않고 낭정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356) 화랑도 조직에서 화랑이 아닌 낭도가운데 우두머리를 낭도라고 한다.

357) 상선은 전임 풍월주이고, 상랑은 화랑의 고참/선임, 즉 전좌(좌대)화랑 등이나 모든 화랑을 가리킨다

358) 마복칠성이란 우두머리 법흥왕(김원종)을 비롯하여 아사공(부모는 선모와 보혜), 수지공(이훈과 준명), 이등공(숙훈과 흥수), 태종공(아진종과 보옥공주), 비랑공(비지와 묘양), 용취공(덕지와 용용공주)이다. 그런데 지금은 전하지 않는 칠성록과 보혜기에는 이등공이 없고 1세 풍월주 위화랑(부모는 섬신공과 벽아부인)이 마복칠성 중의 하나라고 기록되어 있다(화랑세기 1세 풍월주 위화랑 조에서 인용)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 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 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낭도(頭)356)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망두(望頭)가 되어야만 했다. 즉 입망자(入望者)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다. 입망자가 되려면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만 했다. 물론 먼저 낭도가 되어야 했고, 그중에서도 대도(大徒)가 되어야 했다. 23~24세 부터 대도가 될 자격이 주어졌다. 대도 중에서 그냥 공과 재주가 있는 낭도들은 신두(臣頭)로 천거되었다. 그러나 신두는 망두가 될 수 없었다. 망두는 상선(上仙)과 상랑(上郎 357)의 마복자들만이 될 수 있었다. 마복자란 무엇인가? 임신한 여자가 남편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남자와 색사를 하여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이가 상관의 마복자이다. 가령, 화랑의 부인이 임신한 상태에서 풍월주와 색사를 하여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이 풍월주의 마복자이다. 이는 단순히 성의 문란(亂)이라기 보다는 당시 조직체계에서 혈연에 버금가는 혈맹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신라만의 독특한 (성)문화였다고 볼 수 있다. 이 마복자 제도는 위로는 왕으로부터 아래로는 하급관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퍼져있었던 사회제도이며 풍습이었다(대표적으로 제23대 법흥왕은 제21대 소지왕의 마복자이다. 김원종/법흥왕의

[산행후기] 보스톤 산악회와 함께

이성혜(닉: 룰루)

보스톤에 살고 있는 여동생이 6월에 연락이 왔다. 10월 21일에 아들 결혼식을 양가 식구들만 모여서 하기로 했다고 왓싸~그럼 간 김에 White Mountains(NH)에 댕겨 올까? 나는 버지니아에 산다. 그래서 주말에 집에서 가까운 Shenandoah NP(VA)로 산행을 다니는데 거의 매년 가을이 되면 단풍이 예쁜 워싱턴으로 원정 산행을 하러 가곤 한다.

2019년 가을, 와잇마운틴에 다녀오자마자 airbnb를 통해 Mt. Lafayette 근처에 적당한 숙소를 예약했다. 단풍철에 워낙 사람들이 몰리는 걸 알기에 일 년 전에 미리 숙소 예약!! 난 그렇게 단풍도 예쁘고 산세도 수려한 와잇마운틴을 좋아하는데, 결국 코비드로 인해 2020년도 산행이 무산되었다. 올해(2021년도)는 코비드로 인해 갈 수 있으려나 하던 참에 결혼식이 있다 하니 백신도 맞았겠다 기분 좋았다.

인터넷 서치!! 거기에 "파악~" 보스톤산악회" 가 검색 결과로

뜬다. 왓싸~산악회 카페에 들어가 보니, 활발하게 산행을 하고 있었고 대장님의 글들을 읽어보니 글에 따뜻함이 묻어 나온다. 그래!!!여기다!!! 여차여차해서 산행에 참석하고 싶다 하니, 감사하게도 대장님이 쿨~하게 참석하라고 하신다. 그래서 난 이번 10월 23일 토요일에 Mt.Cannon(7마일, 4,081ft)을 보산회와 같이 산행할 수 있었다. 만나기로 한 주차장에 가보니 벌써 산우들이 다 와 계신다. 시간 잘 지키는 보스톤산악회 회원들이 맘에 딱 든다.

단풍은 이미 끝물... 구름이 움직이는 사이로 해가 살짝 고개를 내민다. 바람도 거의 없다.(5mph) 흠,,산행하기 좋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날씨이군. (32-50F) 처음부터 가파르게 바윗길이 시작된다. 오랜만에 이런 야생의 바윗길을 걸어본다. 숨을 고르며 차근차근 오르다 보니 어느새 Mt.Cannon Cliff에 도착. 건너편 Mt. Lafayette 봉우리가 움직이는 구름 속에 살짝 가리웠다 나타나



한다. 그 아래에 93번길이 늘씬하게 S자로 굽어 내린다. 뷰가 몽환적이다.

우리는 몇 년이나 같이 산행한 친구들과서 서로 품을 잡으며 사진을 찍어주고 찍혀 준다. 그렇게 하다 보니 어느새 정상. 간밤에 된 서리가 내렸나 보다. 탐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살얼음이 끼었다. 버지니아는 아직 여름 같은데 여긴

겨울. 난 시간 여행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갑자기 겨울로, 에너지를 많이 아서인지 점심이 맛있다. 샌드위치를 하나 다 먹고 오드리님의 따뜻한 커피로 입가심. 따뜻한 햇살속에 만족충만. ㅎ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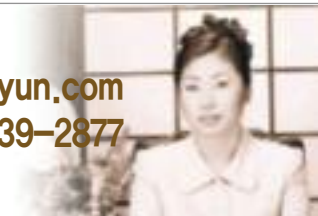
산행 허락해 준것도 고마운데, 먼길 온 손님 그냥 보내지 않고 맛있는 저녁까지 사주신 대장님과 과사모님께 너무 감사하고, 내년

4월에 버지니아에 오신다니 그때 원수를 되갚아 주리라... 버지니아의 명산 Old Rag 을 함께 걸으면서, 대장님의 함께 해주신 오드리, 산메, 산공주, 무도, 솔길 그리고 동갑내기 친구 하늘님 모두 감사했습니다!! 언젠가 또 만나 걸어요~

11월 7일 - 11월 13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쥐띠 확실한 기회이니</p> <p>●운수: 수많은 아이디어와 생각이 교차하게 되는 운입니다. 평소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까지 생각이 미치게 될 것입니다. ●금전: 예상하지도 못했던 기회가 오게 됩니다. 확실한 기회이니 잘 활용하고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세요. ●애정: 새 연인을 만나게 됩니다. 우연한 곳에서 새로운 사랑을 얻게 될 것입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8, 13일, 7, 9일 주의.</p>	<p>소띠 유리한 방향으로</p> <p>●운수: 문서적인 일의 추진으로 현 상태에서 발전을 기대할 기회가 있겠습니다. ●금전: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릴 것입니다. 수입은 늘고 지출은 적으니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애정: 새로운 만남의 기회가 주어지는 때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이지 못하면 오래가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9, 12일, 7, 10일 주의.</p>	<p>범띠 새로운 돌파구를</p> <p>●운수: 무리하지 말고 욕심도 내지 말고 차분하게 내일을 준비하는 일로 보내는 것이 현명합니다. ●금전: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으나 노력의 대가와 현실적으로 자신의 몫을 얻으려면 아직 이릅니다. 시간이 흘러야 할 것입니다. ●애정: 소나기가 내린 뒤에 무지개가 화려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처럼 어려움 뒤에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게 됩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10, 13일, 8, 11일 주의.</p>
<p>토끼띠 사랑을 비로소 느끼게 되는</p> <p>●운수: 도움을 주는 귀인을 만나는 운입니다. 흥이 변해서 길이 되니 목적하는 바를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금전: 시간은 물처럼 빠르게 흐르는 것이니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부지런하게 일 처리를 한 것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애정: 그동안 자신도 모르게 젖어 들었던 사랑을 비로소 느끼게 됩니다. 조금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7, 11일, 9, 12일 주의.</p>	<p>용띠 과욕을 줄여야</p> <p>●운수: 자신도 어쩔 수 없는 변화의 물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흐름에 따라가지 말고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금전: 두 가지를 동시에 잡을 수는 없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과욕을 줄여야 성공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애정: 이성의 유혹이 따릅니다. 자신을 잘 지키지 않으면 난처한 처지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8, 12일, 10, 13일 주의.</p>	<p>뱀띠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p> <p>●운수: 현실적으로 도저히 가능하다고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금전: 결정적인 순간에 결단을 내리지 못해 자기 실리를 찾지 못하고 후지부지 넘어가기 쉬우니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할 것입니다. ●애정: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거부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차피 받아들여야 할 사실이라면 하루빨리 인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9, 13일, 8, 11일 주의.</p>
<p>말띠 긴 안목을 가지고</p> <p>●운수: 심리적 갈등이 심한 상태입니다. 오늘은 이 생각, 내일은 저 생각 수시로 마음의 상태가 바뀌고 있습니다. ●금전: 당장 들어오는 소득을 염두에 두기보다는 긴 안목을 가지고 투자해야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애정: 연인 사이는 헤어짐을 부르는 불화를 조심해야 합니다. 가족 또는 가까운 사람과 이별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7, 10일, 9, 12일 주의.</p>	<p>양띠 가까워질 기회가</p> <p>●운수: 멀어졌던 인간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자기 일보다는 타인의 일을 돕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금전: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보다도 앞날에 대한 희망과 기대감이 큰 즐거움을 줄 것입니다. ●애정: 그냥 그렇게 별 변화 없이 진행되어오던 관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가까워질 기회도 생기겠습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7, 11일, 10, 13일 주의.</p>	<p>원숭이띠 정확히 상황판단을 하고</p> <p>●운수: 일을 잠시 손에서 놓고 꼭 쉬려는 시기이니 어떤 일도 새롭게 시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금전: 문서상으로 불이익을 초래하게 되는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모든 서류처리나 사인은 조심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애정: 눈 뜨고도 제대로 못 볼 우려가 있습니다. 정확히 상황판단하고 혼자서 힘들면 주위 사람에게 조언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9, 12일, 10, 11일 주의.</p>
<p>닭띠 진주를 발견하게 되는</p> <p>●운수: 사업가는 자신의 능력을 함께 떠나갈 수 있는 귀한 동업자를 얻을 것입니다. ●금전: 적극적인 활동으로 분주하게 뛰는 만큼 소득이 따라옵니다. 보람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애정: 흠 속에 감추어져 있던 진주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동안 가까이 두고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보석 같은 존재를 바로 알게 되겠습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8, 13일, 10, 12일 주의.</p>	<p>개띠 마음을 가볍게 하고 살아야</p> <p>●운수: 혼자 고민하지 말고 믿고 도움을 줄 만한 사람과의 논해 보세요. 같이 고민을 하다 보면 좋은 해결책이 나올 것입니다. ●금전: 안정된 상태에 만족해야지 욕심내서는 안 됩니다. 큰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애정: 사소한 일에 너무 의미를 두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마음을 가볍게 하고 살아야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게 됩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8, 9일, 7, 13일 주의.</p>	<p>돼지띠 인연을 소중히 여겨야</p> <p>●운수: 때가 되면 드러내고 나타나 있지 않아도 그 가치를 인정받기 마련이니 당장 결과에 미련을 두지 마세요. ●금전: 모든 일에 욕심을 버리는 겸허한 마음과 부족할수록 나누어 줄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애정: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대할 수 없는 것이 사람 사이의 인연입니다.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인연을 소중히 여겨야 하겠습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7, 12일, 8, 10일 주의.</p>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스시맨 풀타임, 파트타임 구합니다.
T. 508-655-3951, 978-494-2712

내탁물에 있는 옷가게에서 성실하게 일하실 분을 찾습니다.
영어 가능하신분.
T. 617-543-9656(John)

렉싱턴에 있는 치과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실분 구합니다.
경험이 없으신분은 트레이닝 해드립니다.
T. 781-859-9218

사고 팔고

광고 문의 617-254-4654

좋은 조건으로 리틀부산 식당 판매합니다.
렌트 저렴, 좋은 위치, 리커 라이선스
주인 은퇴, 상담 환영합니다.
T. 978-897-5107

생활서비스

광고 문의 617-254-4654

보스톤지역 자동차 출장 수리 해드립니다.
모든 브랜드 차종, 모든 파트 수리 가능합니다.
T. 646-510-6022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뇌 동기화로 기억 공유...애플TV+ 첫 한국 시리즈 'Dr. 브레인'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애플 TV+의 첫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 'Dr. 브레인'이 4일 공개된다.

애플TV+는 3월 이선균 주연의 SF 스릴러 시리즈 'Dr. 브레인' 공개를 하루 앞 두고 온라인 콘퍼런스를 열어 작품을 소개했다.

'Dr. 브레인'은 천재 뇌 과학자가 의문의 사건에 휘말린 자신의 가족에게 어떤 일이 왜 일어났는지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아내를 포함한 사건 관련자들의 뇌에 접속해 기억을 모으는 이야기다.

동명의 한국 웹툰을 원작으로 한 시리즈로 '장화, 홍련',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악마를 보았다' 등을 연출한 김지운 영화감독이 처음으로 만든 드라마란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김 감독은 "천재 뇌 과학자가 의문의 사건을 겪는데, 아주 기이한 방식으로 사건을 풀어간다"며 "다른 사람의 뇌를 자신의 뇌와 동기화시켜 비밀을 풀어가는 독특한 스릴러로 '뇌 추적극', '기억 추적극'이라고 할 수 있다"고 작품을 소개했다.

이어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가



생각과 마음을 읽고 싶다는 욕망은 원초적인데 그걸 다룬 원작에 무척 흥미가 있었다"며 "웹툰이 송곳처럼 아주 날카로운 질주극의 느낌을 준다면, 드라마에서는 의외의 재미와 흥미, 감동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뇌 과학을 다루는 만큼 전문가인 정재승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의 조언을 받아 지나치게 허황된 이야기로 비

치지 않도록 하는 데도 공을 들였다.

김 감독은 "취 실험에서 뇌 동기화가 성공했고, 죽은 사람의 뇌에도 전기 충격을 주면 일시적으로 에너지가 생기면서 뇌 속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들었다"며 "작품에 몰입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근거들을 드라마 안으로 많이 가지고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에스파, 미국 대규모 축제 선다... "K팝 걸그룹 최초"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걸그룹 에스파(aespa)가 미국 최대 규모 추수감사절 축제인 '메이시스 퍼레이드'(Macy's Thanksgiving Day Parade)에 참석한다고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가 2일 밝혔다.

에스파는 이달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퍼레이드 행사에 참석한다.

이들은 K팝 걸그룹으로는 최초로 퍼레이드 현장에서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소속사는 전했다.

메이시스 퍼레이드는 미국 유명 백화점 브랜드인 메이시스가 주최하는 추수감사절 축제로, 유명 인사와 공연단이 퍼레이드 카를 타고 뉴욕 시내를 행진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메이시스는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에스파에 대해 "가장 대담한 K팝 신인 걸그룹으로, 각자 가상 세계에 살고 있는 아바타를 가지고 있다는 SF 콘셉트"라며 자세히 소개했다.

yes@yna.co.kr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o@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보스톤코리아

코로나 사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건강이 당신의 가족을 지킵니다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포르투갈 '리스본' 여행을 다녀와서...

여행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며 오늘을 성실히 맞이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한다. 바쁜 일상에서의 삶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옆과 뒤를 돌아볼 사이 없이 시간에 쫓기듯 앞만 보고 달리게 하는 까닭이다. 여행이라는 것을 그저 시간적인 여유와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들 갖고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삶에서 여행의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의 시간을 마련할 수 있는 나 자신의 선택과 결정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한다.

문득, 남편이 내게 들려줬던 이야기가 생각난다. 몇 년 전의 일이다. 페루 마추픽추에 여행을 계획하고 떠나려고 할 때 가깝게 지내는 지인과 식사 자리가 마련됐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이 아내인 내게 하는 말이 저 지인에게 시간을 주고 돈을 준들 자기만큼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겠어? 남편의 그 말속에 여행을 좋아하는 아내를 탓하기보다는 다닐 수 있을 때 다니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칭찬을 해주는 것이

있었다. 그래서였을까. 여행을 떠날 때면 늘 남편의 그 말이 내 머릿속에서 남아 꿈틀거린다.

환경은 누구나 다 다를지라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최고의 삶이 아닐까 싶다. 그 누구보다도 나 자신에게 정직하고 거리낌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다른 이들의 시선이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자만하거나 위축되지 않고 그 어떤 자리에서나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다면 그 삶은 최선이고 최고라는 생각을 한다. 그 어떤 종교를 덧붙이지 않더라도 말이다. 너른 산과 들과 바다 그리고 모든 자연에서 배우듯 여행하며 낮은 곳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이 내 삶에서 또 하나의 스승인 것이다.

이번 여행의 시작은 동네에서 가깝게 지내는 골프 멤버 몇 언니들과의 여행 이야기로 시작되었다. 자식들이 훌쩍 컸으니 훌쩍 떠날 수 있는 여건이 아니 조건이 갖춰진 셈이다. 코비드로 인해 여행의 제약 조건들이 꽤 많아 많은 이들이 여행을 기피하는지도

모른다. 요즘은 '위드 코로나'라는 말이 나오기는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것이 현실이지 않던가. 그렇게 이런저런 제약 조건을 뒤로한 채 다섯 여자들의 외출(여행)계획이 시작되었다. 서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나누며 여행 날짜를 기다렸다.

떠나길 바로 전날, 한 언니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건강이 아무래도 여의치 않아 이번 여행을 접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이다. 많이 서운했다. 5박 6일의 일정이지만, 10월에 떠나 11월에 돌아오는 두 달 일정의 여행이다. 저녁 오후 6시 정도 보스턴 로건 공항을 출발해 6시간이 지나서야 포르투갈 리스본 공항에 이른 아침에 도착했다. 호텔에 짐들을 맡겨놓고 간단한 커피를 마신 후 택시를 잡아타고 여행을 시작했다.

포르투갈 '리스본'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노란 색깔의 28번 트램을 꼭 타보라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좁은 도로를 오르락내리락거리며 알파마의 골목길 28번 트램을 즐겼다. 또한, 코메르시우 광장에 도착해 우

뚝 선 개선문 사이를 오고 갔다. 18세기에 일어난 리스본 대지진을 복구하는 의미에서 세워진 것이라고 한다. 개선문을 사이에 두고 아우구스타 거리가 먹거리 골목이 되어 늘어서 있었다. 바다로 둘러싸인 포르투갈 리스본에서는 생선이 유명하다. 모두들 맛난 생선에 그만 말문을 닫았다.

리스본의 대성당을 들어가기 전 하얀 백발의 여자 노인이 허름한 차림에 구걸을 한다. 작은 문지방을 들어서니 성당 안은 컴컴하고 웅장함 속에 높이 올려진 스테인글라스의 빛이 더욱 황홀하게 느껴진다. 아, 웅장함에 압도당하고 다시 밖으로 나왔다. 빠트릴 수 없는 곳 수도원 옆 100년이 넘는 빵집이 있었다. Pastéis de Belem이라는 곳의 빵집이었다. 바깥에서 기다리는 인파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안의 손님들을 맞을 큰 공간이었고, 그 빵들의 놀라운 맛이였다. 또 기억에 남는 곳은 유럽 대륙의 땅끝이라 불리는 '카보 다 호카(Cabo Da Roca)'였다. "이곳에서 땅이 끝나고 바다가 시작된다." 우리네 삶도 그렇지 않을까.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담객설閑談客說: 평균 한국인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결혼해 더운 물이 나오는 30평 아파트에서 부모님을 모시지 않고 평균 서너 명의 식구가 살고 있다. 월소득은 150에서 200만원 정도. TV, 전화, 오디오는 물론 컴퓨터와 자가용도 있다. 두세 개 정도의 카드를 갖고 있고 가끔 가족이 외식을 한다. 월 40~50만원을 자녀교육비로 털어 넣으며 휴가철엔 가족여행이 필수다.'

또 세월이 흘렀다. 한 세대가 지난 오늘이다. 한국보통 남자들의 2021년은 어떠한가? 내 스스로 추정해 봤다.

'평균수명치는 6~7년 늘었다고 했다. 그걸 적어 한국남자의 평균연령은 45세 안팎 정도 되지 않겠나. 직장에선 부장쯤은 되었을터. 물론 결혼은 했을테고, 1~2명 자녀를 두었을 거다. 키는 174센티미터에 몸무게는 아마 67킬로그램. 월수입은 대략 사오백만

원 정도인데 승용차는 물론 아파트와 스마트폰도 갖고 있다. 다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하다.' (김씨 추정)

사십년전에 비해 수입은 열배가 늘었다. 생활의 질이야 열배만큼 향상되었는가는 가능하기 힘들다. 현실엔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돈이 어렵지 않게 오고간다 했으니 말이다. 이름도 괴상한데 대장동개발인가 화천대유라던가. 보통 사람들은 감히 꿈도 꿀수 없어 허탈감과 불안감만 쌓인다.

요새 젊은 남자들 결혼연령이 자꾸 늦어지는 모양이다. 평균 37세 라했는데 옛날이 라면 다 큰 아이들이 한둘은 되었을 나이이다. 미국에 사는 이민자 평균은 어떠한가?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후서 8:14)

한국신문 기사를 기억하고 있었다. 인상 깊게 읽었는데, 몇일전 책에서 기사내용을 다시 발견했다. 1984년 평균한국 남자의 모습이다. 보통사람 이라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게다. 그대로 옮긴다.

'나이 37세, 키 167cm, 몸무게 63Kg,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27세에 결혼해 처자식과 부모, 다섯 식구를 부양하고 있다. 집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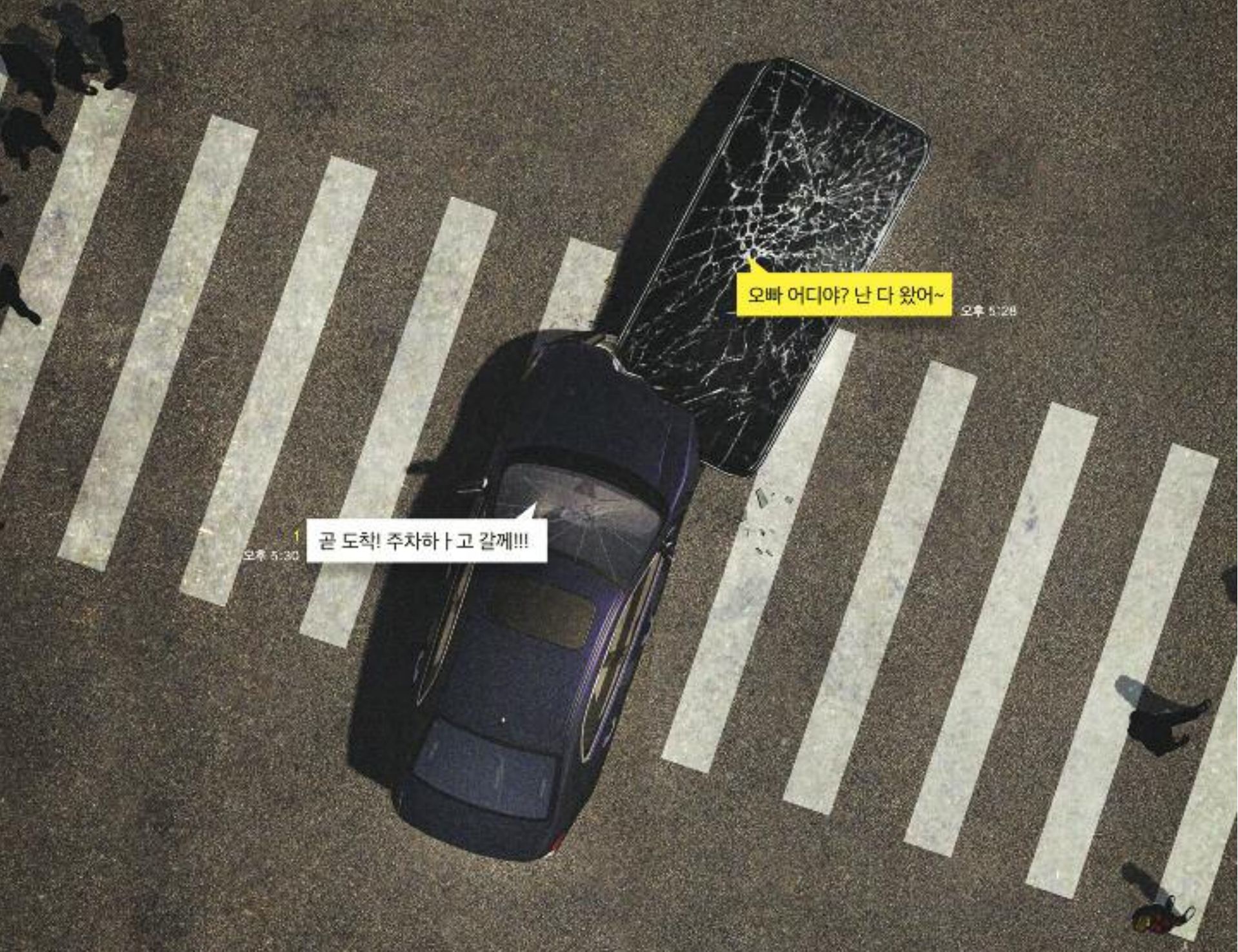
있지만 방은 두 개만 쓰고 나머지는 세를 주었다. 월소득은 40만원 가량, 집에 TV는 한 대 있고, 세탁기, 오디오, 피아노는 없다. 자가용은 물론 없다.'

십여년 후, 1997년 한국인 남자평균이다. KBS 방송 조사인데, 그럴듯 하고 희망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하다고 했다. '학력은 전문대 졸업 정도, 20대 후반에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국민 김규연 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1 공익광고 공모전 수상작



오빠 어디야? 난 다 왔어~

오후 5:28

곧 도착! 주차하고 갈게!!!

오후 5:30

서로의 위치는 확인했지만 눈앞의 위험은 확인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보행 중 교통사고 60% 이상이 스마트폰 사용 중 발생합니다.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중앙대학교병원>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조선 제일의 성군, 세종대왕의 건강을 위협한 '대상포진'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세종대왕도 통증으로 힘들어 했던 대상포진에 대해 휴람 의료네트워크 중앙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신화용교수와 정혜선 임상조교수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훈민정음’ 을 비롯해 수많은 업적을 세우며 조선시대 최고의 성군으로 평가받는 인물, 세종대왕. 조선의 정치, 경제, 문화면에서 훌륭한 치적을 쌓아 올렸지만 그런 그에게도 한 가지 약점이 있었다. 바로 평생토록 갖은 질환을 앓았다는 것. 비만, 당뇨, 관절염과 같은 대사질환은 물론이고 만성두통과 안질환까지 겪었다고 한다. 세종실록에는 세종이 호소했다는 내용만 약 50회가량 등장할 정도다.

“조금이라도 말하거나 움직이거나 감정이 바뀌면 바늘로 찌르는 듯한 고통이 나타났습니다.”

세종은 대상포진을 앓기도 했다. 세종실록에는 세종이 임질(성병)을 앓았다는 대목이 나오지만 현대 의료진들이 기록을 분석한 결과, 임질이 아닌 대상포진일 것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기록에 따르면 세종의 피부에는 물방울 비슷한 것들이 생겨났고(淋) 신경통(疾) 증상을 호소했기 때문에 임질(淋疾)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학자들은 분석한다. 세종은 과로한 탓으로 면역력이 약해져 대상포진에

걸렸고 포진 후 신경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 극심한 통증을 앓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이 집무를 보려고 애 썼다는 기록도 존재한다. 만약 발전된 현대의술로 세종대왕의 대상포진과 이후에 따라왔던 신경통을 치료할 수 있었다면 더 많은 업적을 세울 수 있지 않았을까? 중앙대학교병원 명인들이 세종대왕을 치료한다면 어떤 솔루션을 줄 수 있을까?

명의 처방
환자명 : 이도(세종대왕)
(1397~1450)
직업 : 조선 제4대 왕
병명 : 대상포진
몰래 숨어있는 잠복질환 '대상포진', 그 원인은?

대상포진은 보통 어릴 적 앓았던 수두 바이러스가 신경절에 잠복해 있다가 재활성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재활성화' 의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으며 항암, 면역억제제 투약, 스트레스 등과 같이 면역력이 떨어질 때 발병한다.

감기로 오해할 수 있는 대상포진 초기 증상
대상포진에 걸리면 일반적으로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된 신경절이 관장하는 특정 피부 부위를 따라 통증과 발진이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가장 먼저 발생하는 증상은 '통증' 이다. 초기에는 간지럽거나 몸살 기운과 같은 증상으로 시작된다. 점차 특정 부위가 따끔거리고 화끈거리며 찌르는 듯한 양상의 통증이 발생하고 심할 경우 옷깃만 스쳐도 견딜 수 없다고 한다.

이후 피부는 붉은 발진 및 수포가 동반되었다가 농포, 가피(딱지)가 되어 점차 사라지게 되며 평균 발진 기간은 약 2~3주 정도이다. 보통 한쪽에만 발생하는 일측성으로 나타나고 가슴이나 등, 얼굴 순으로 많이 나타난다.

치료 방법 및 조기 치료의 중요성
대상포진 치료 자체를 간단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바이러스 감염의 문제이기 때문에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말이다. 하지만 대상포진의 치료는 이렇게 단순하지 않다. 우선 통증과 피부발진이란 증상을 가지고 환자들이 바로 병원에 가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기 진단 및 적절한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 항바이러스제는 피부 발진이 생긴 후 72시간 이내에 투여되어야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조기 진단 및 투약이 중요하다. 따라서 특정 부위의 통증이나 피부 증상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병원을 가봐야 한다. 또한 대상포진의 치료는 대상포진 바이러스 자체의 치료보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 으로 넘어가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대상포진 후에 발생하는 만성통증으로 정의되는데, 감염되었던 신경에 이상이 생겨 지속적으로 해당 부위에 통증을 전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지속적인 통증으로 우울증, 수면장애가 동반되기도 하며 이로 인해 직업적, 사회적 곤란을 겪으며 삶의 질이 저하된다. 고령의 경우에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많게는 75%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하며 보통 통증이 3개월 정도

지속되는 경우 진단을 내리게 된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 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안타깝게도 아직 뚜렷하게 정립되어 있지는 않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조기 진단을 통한 항바이러스제의 빠른 투약과 해당 신경에 대한 신경근 차단 및 교감신경차단과 같은 시술적 치료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적절한 시술을 위해서는 침범된 신경이 정확히 몇 번 신경인지 파악할 수 있고, 해당 신경에 접근하는 안전한 방법을 잘 아는 통증 임상 의 진료를 받기를 권고한다. 또한 여러 연구를 통해 승인된 통증 조절제인 항경련제, 국소마취성분의 패치, 캡사이신 연고 등을 통해서도 조절할 수 있고 50세 이상에서는 대상포진 예방접종도 권고되고 있다.

“대상포진”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M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617.455.8073
mw@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한차원 높은 고국 방문 건강검진 서비스... 휴람 의료관광을 이용해보세요!



◆ 휴람건강검진 ◆

시설, 장비, 퀄리티, 검사항목, 서비스, 가격 등 해외동포분들을 위한 '비교우위' 프로그램입니다!!!

** 휴람은 상담-예약-검진진행-사후관리를 보호지역할로서 도와드립니다.
** 지금 상담을 통해 고객 여러분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검진을 결정해 보세요!!



■ 휴람 건강검진 이벤트

◀ 종합검진 기본 항목 ▶

- | | |
|----------------------------------|-----------------------------|
| 1. 이학적검사 (신체계측, 비만도, 시력, 안압, 혈압) | 7. 체지방검사 |
| 2. 청력검사 (순음청력검사) | 8. 부인과검사 (자궁경부암, 유방특수촬영) |
| 3. 혈액검사 (종합혈액검사 70여가지) | 9. 소화기검사 (위내시경) |
| 4. 암표지자검사 | 10. 복부초음파검사 (간장, 췌장, 복부장기등) |
| 5. 심폐기능검사 (흉부X-RAY, EKG, 노력성폐활량) | 11. 문진 및 전문의 상담 |
| 6. 요검사 | |

휴람 당일종합검진

소요시간 : 4시간 : 49만원 ~

- 기본항목 + [남] 흉부(폐)CT, 전립선초음파, 골밀도검사
- 기본항목 + [여] 갑상선초음파, 부인과초음파, 유방초음파, 골밀도검사

휴람 숙박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후 ~ 명일 12시경 퇴원 : 60만원 ~

- 당일종합검진 + 대장내시경+ 숙박(1인실)

휴람 정밀숙박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후 ~ 명일 12시경 퇴원 : 95만원 ~

- 숙박종합검진 + [남] 경동맥초음파, 뇌MRI, 뇌MRA
- 숙박종합검진 + [여] 뇌MRI, 뇌MRA

휴람 VIP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후 ~ 명일 12시경 퇴원 : 225만원 ~

- 숙박종합검진 + 뇌MRI, 뇌MRA, 심장 CT, 심장 초음파, 갑상선 초음파, 경동맥 초음파
- [남] 갑상선초음파 [여] 폐CT

휴람 VVIP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전 ~ 명일 12시경 퇴원 : 370만원 ~

- VIP종합검진 + PET-CT, 복부조영CT, 호르몬검사, 호모시스테인(중풍, 심혈관질환 인자)

휴람건강검진 네트워크 병원

휴람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 중앙대학교병원(동작구 흑석역) / H+양지병원(관악구 신림역)
- 세란병원(종로구 독립문역) / 강남지인병원(논현동 학동역)
- 강남병원(용인시 신갈동 기흥역)

※ 프로그램에 따라 픽업서비스, 물품세트, 죽등을 제공합니다.
※ 상기 검진은 병원에 따라 검진 항목 및 비용 및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카카오톡 : 010-3469-4040(ID: huramkorea)
이메일 : huram@huram.kr
홈페이지 : www.huramkorea.com





조정된 상품 가격 (5월 1일부터. 무료영화는 6월부터 편당 1화로 변경)

*전상품 1년 약정

Plus 상품

KBS, MBC, SBS, EBS, YOUTUBE

\$24.99

Premium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중편, YOUTUBE

\$34.99

VIP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중편, 영화/성인, YOUTUBE

\$39.99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연합뉴스TV MBN JTBC / JTBC골프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육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바둑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



한차원 높은 의료서비스 휴람 의료관광을 이용해보세요!



휴람 척추관절

나이가 들면서 오는 척추관절 퇴행성 질환...
통증을 참고 계시나요?
어떻게 사시느냐가 중요합니다!
가치있는 생활을 위하여...하루 빨리 검사해보세요!

“ 지금 상담을 통해 필요한 검사로 빠른 진단과 치료를 진행해보세요,
휴람은 국내수거로 부담없는 비용에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관절 질환

퇴행성관절염
인대파열
연골손상
오십견
회전근개손상
무지외반증
족저근막염 등등

세포치료, 체외충격파,
관절내시경, 발목공정술,
흰다리교정술
로봇인공관절등등



척추 질환

디스크
협착증
측만증
거북목증후군
골절 등등

미세현미경디스크절제술
경피적 척추성형술
척추유합술
신경성형술등등

*** 정확한 상담을 위해 기존에 촬영하신 X-RAY, MR- 사진을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 상기 치료는 병원에 따라 치료항목에 따른 비용 및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휴람 척추관절 네트워크 병원 - 휴람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사랑플러스병원(강동구 굽은다리역), 연세사랑병원(서초구 사당역)
 세란병원(종로구 독립문역), H+양지병원(관악구 신림역), 중앙대학교병원(동작구 흑석역)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Tel : 070-4141-4040
카카오톡 : 010-3469-4040(ID: hureamkorea)
이메일 : huream@huream.kr
홈페이지 : www.hureamkorea.com





HOME RENOVATION
NAMU

나무

- 국제기능올림픽 목재분야금메달리스트
- 대통령 훈장 수훈
- 15년 이상의 경력



WHY NAMU



정직하고
디테일한 견적



고객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진행



체계적 관리를 통한
계약 기한 내 완공

SERVICE

- ✓ 하우스 레노베이션
- ✓ 커스텀 캐비닛, 데크
- ✓ 원목 테이블, 가구

견적부터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책임지고 양심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무료
견적
상담

🌐 www.namuma.com
 ✉ info@namuma.com
 ☎ 617-775-4771
 📍 58 Pulaski st, Peabody, MA 01960
 📷 @namu_finewood

INSTAGRAM



THE PRO REALTY GROUP

수잔 부동산

풍부한 경험으로 믿을 수 있는
한인 부동산 회사

T.339.224.1512

245 First Street Riverview II 18th floor Cambridge, MA 02142



Susan Ahn

Broker & Principal

susan@prorealty.group

Kakao ID : susan1223



1

탁월한 협상

오랜경험과 전문적인 팀워크로 구성

2

바이어, 셀러

전문적 지식과 정확한 서비스로
고객 여러분께 만족스러운 결과를 제공

3

이주자 상담

타주 & 한국 투자 상담

4

전문적인 일처리

30년 경력 부동산전문 변호사 파트너와
여러분의 재산을 지켜 드립니다

그 어떤 것도 놓치지 않겠습니다!